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고통의 양상과 의미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이 정 훈

국문초록

본고는 윤홍길 소설 전반을 아우르는 중심소재를 고통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물들을 문제 삼는다. 구체적으로 윤홍길은 타인에게 향하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자신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식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 본고는 윤홍길 소설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무지의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가가 고민해온 궤적을 작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보편 무지의 양상을 살폈다. 이에 앞서 등단작 「회색면류관의 계절」을 통해 고통에 대한 윤홍길의 기본적인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윤홍길은 고통을 받지 않는 인물은 없으며,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편 무지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무력감이 나타나는 양상을 「황혼의 집」, 「건넌목 이야기」, 「장마」, 「양」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야기한 인물이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양상들에 주목하였다.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윤홍길은 인

물들의 자기 정당화와 부합하지 않는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3장 1절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2, 「엄동」, 「빙청과 심홍」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윤홍길이 바라보는 고통의 속성은 그것을 야기한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보았다. 이는 「무제」, 「꿈꾸는 자의 나성」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장에서는 윤홍길이 초기 작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복수라는 문제로 귀결됨을 살펴보았다. 4장 1절에서는 『완장』의 분석을 통하여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한 번 발생한 복수의 영향력이 후손 세대에 미치는 피해의 양상을 살폈다. 4장 2절에서는 복수의 굴레를 멈춤으로써 복수가 야기하는 고통이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윤홍길이 고심한 흔적을 『산에는 눈 들에는 비』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작가는 우선 평생을 복수에 매달린 인물이 겪는 불행을 통하여 복수의 허무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또한 복수는 자신의 후손 세대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또한 복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윤홍길, 고통, 타인, 보편 무지, 책임, 분노, 복수

학 번 : 2016-20036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1.2. 연구의 시각	7
2.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보편 무지의 양상 ·	13
3.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 비판 ...	32
3.1. 책임에 대한 무지의 양상	32
3.2. 회귀하는 고통이 촉구하는 책임의식	43
4. 망각되지 않는 복수의 부당함	51
4.1. 부당한 복수가 야기하는 고통의 양상	51
4.2. 용서를 통한 복수의 굴레 벗기	61
5. 결론	72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윤홍길(尹興吉, 1942~)은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 작가이다. 50여 년 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5편의 단편집과 11편의 장편을 출간하였고, 그 외 수 편의 콩트집과 산문집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미완이었던 『뺨아도 아리랑』을 개작한 장편 『문신』을 집필하고 있다.

그는 1976년에 첫 단편집인 『황혼의 집』을, 그리고 이듬해에 두 번째 단편집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내놓으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분단의식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 중편 「장마」와 광주대단지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시민의 독특한 성격과 삶의 내력을 그린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이하 「아홉 켄레」) 연작은 당대 비평계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그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장편 창작에 힘쓰면서 『에미』, 『완장』, 『산에는 눈 들에는 비』, 『낮』, 『소라단 가는 길』 등을 발표하였다.

윤홍길 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첫째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분단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는 데에 주목한 논의들이다. 7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당대비평은 윤홍길 소설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한결같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¹⁾ 이러한 비평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1) 오생근, 「정직한 삶의 불투명성」, 『우리시대 작가연구 총서-윤홍길』, 은애, 1979, 23면.

가족의 죽음이나 친숙한 사람의 사라짐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파악하며,²⁾ 남은 인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관계³⁾와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⁴⁾ 이를 통하여 당대비평은 전쟁이 야기하는 고통이 윤홍길 초기 중·단편의 주요 소재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를 통하여 작품의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연구는 다시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린 아이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 자라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작품을 성장소설로 이해하는 시각이다.⁵⁾ 다른 하나는 그의 작품이 전쟁과 분단 상황이 야기한 고통을 관찰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 이르렀다는 시각이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장마」를 중심으로 해

-
- 2) 김병익, 「불화의 세계와 그 인식」, 위의 책, 42면; 김현, 「생활과 신비-윤홍길의 작품세계」, 위의 책, 50면.
 3) 김치수, 「사건과 관계」, 위의 책, 93-101면.
 4) 홍성원,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조명」, 위의 책, 106-110면.
 5) 차혜영, 「성장소설과 발전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박정은,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악의 체험과 죽음의 체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하나, 「1970년대 성장서사에 나타난 전쟁기억의 재현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화진, 「윤홍길 성장소설의 세계와 의미」, 『반교어문학회』, 31, 반교어문학회, 2011.
 6)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지성』 (봄), 문학과지성사, 1979.
 김영화, 「장마와 무지개」, 『월간문학』 (6), 월간문학사, 1987.
 노진한, 「장마論-한국전쟁과 그 해결의 방법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5.
 신순철·심영덕, 「분단시대와 민족문학의 전개양상」,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 경주전문대학, 199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조선희, 「윤홍길의 『장마』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 나타난 분단 극복의 양상」,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2003.
 백지영, 「윤홍길의 「장마」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구호, 「분단 극복을 위한 모색-윤홍길의 『낫』을 중심으로」, 『어문논

손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분단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규명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드러낸다.

선행 연구의 두 번째 관점은 급격하게 산업화되어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꺾진하게 관찰하는 시선에 주목하고 있다. 70년대 비평은 여러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한다. 이러한 특징이란 대체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채, 외부세계와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논의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김병익은 윤홍길의 세계가 ‘억눌린’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억눌린 자가 억눌린 상태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에 작가가 분노를 품고 있다고 지적한다.⁷⁾ 권오룡은 양심을 지키려는 인물들을 통하여 집단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그 속에 감춰진 참된 의미를 밝혀내려는 작가의 의지를 언급한다.⁸⁾ 또한 정명교는 현실과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을 통하여 작가가 모든 인간을 사회의 한 기능으로 전락시키는 현실을 나타내고자 하였음을 설명한다.⁹⁾

당대비평이 단편집 『황혼의 집』과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실린 모든 작품들을 고루 다루려한 데 비하여, 이후의 연구는 「아홉 켄레」 연작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연작의 주인공 권기용의 변모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권기용을 소시민적 지식인으로 규정하고, 그가 현실과 부딪히고 집단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개인의 자존심보다 현실의 문제

충』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이금례, 「윤홍길 소설 연구-분단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서승희, 「윤홍길의 분단소설 연구-체험의 서사에서 모색의 서사로」,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7) 김병익, 앞의 글, 45-46면.

8) 권오룡, 「진실과 해학」, 『우리시대 작가연구 총서-윤홍길』, 은애, 1979, 70-71면.

9) 정명교, 「가족·개인·도구」, 위의 책, 152면.

들을 중시하는 인간으로 변모한다고 보고 있다.¹⁰⁾ 단, 그 결과 권기용이 자신을 완전히 노동자로 인식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또 권기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오선생이나 안순덕 등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다수이다.¹¹⁾ 이외에도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¹²⁾ 서사학 이론을 적극 도입한 연구¹³⁾ 등이 있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방향이 특정 작품 위주로만 치우쳐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 윤희길 소설 연구는 그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장마」나 「아

-
- 10) 김교선, 「윤희길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4), 현대문학, 1982.
 이재현, 「문학의 노동화와 노동의 문학화」, 『삶과 노동과 문학』, 실천문학사, 1983.
 정규웅, 「어둠 속의 진실들」, 『한국문학전집』 36, 삼성출판사, 1985.
 홍기삼, 「산업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학」, 『한국문학연구』 1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7.
 백로라, 「윤희길의 작품세계」, 『승실어문』 13, 승실어문학회, 1997.
 이평진, 「윤희길 소설에 나타난 자본주의 공간의 병리성 연구」, 『인문학연구』 37(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11) 양문규, 「윤희길론-분단 및 산업사회 현실에 대한 독특한 문제의식」, 『현대문학의 연구』 9,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박숙자, 「1970년대 타인의 윤리학과 ‘공감’의 서사」, 『대중서사연구』 17(1), 대중서사학회, 2011.
 정주아, 「개발독재 시대의 윤리와 부」,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이철호, 「민중이라는 심연」,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나병철, 「윤희길 소설에 나타난 내부시점의 시각성과 타자 윤리의 울림」, 『청람어문교육』 6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서보호·안아름, 「윤희길 소설에서 나타난 마조히즘의 양상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7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 12) 장진구, 「광주대단지 사건과 문학적 재현」,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김근호, 「산업화시대 한국소설의 폭력 표상과 이웃 윤리」,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김형중, 「윤희길 초기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에 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 6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 13) 정은주,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시점과 감정이입 미학의 소설교육」, 『교원교육』 34(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8.

흡 컬레」 연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평 이론의 적용을 시도하거나, 혹은 이 작품들과 주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시기적으로 근접한 다른 몇몇 작품들을 묶어 지엽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주된 경향이었다고 파악된다. 물론 대표작들과 그 외의 작품들을 대등하게 위치지어 작가의 작품 활동 전반을 다루는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들 간의 연속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주제별로 작품들을 묶어서 따로따로 파악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¹⁴⁾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가 일률적으로 윤홍길 소설을 개인과 시대 현실 사이의 갈등 구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윤홍길을 ‘분단문학의 작가’라고 상정하는 시각¹⁵⁾에서는 윤홍길 소설이 이해할 수 없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현실에 대항하여 혈연의 정과 동질감의 회복을 강조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려 한다고 파악한다. 또 산업화 사회를 조망하는 작품들을 연구하는 시각은 윤홍길이 사회 속으로의 순조로운 통합을 치르지 못한 인물들에 주목한다고 본다. 산업화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식적인 질서로부터 주변부로 밀려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인과 사회의 갈등을 해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윤홍길의 특징이라고 이러한 연구들은 파악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윤홍길 소설의 갈등 양상을 개인과 시대 현실 사이의 거시적 차원으로만 파악하는 작업은 작중 인물 사이의 다채로운 관계를 미시적으로 다루는 윤홍길의 특징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분단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는 윤홍길의 작가의식을 읽어내는 작업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와 갈등 양

14) 양문규, 앞의 논문.

곽윤경, 「윤홍길 장편소설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5) 강진호, 「분단 현실의 자기화와 주체적 극복 의지-1970년대 분단소설에 대해서」,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 2000.

조선희, 앞의 논문.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상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윤홍길 소설의 주요 작중 인물들이 산업화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존재하였던 자들 혹은 내부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임을 밝히고 있다.¹⁶⁾

이상으로 살펴본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는 윤홍길 소설의 연구 범위를 대표작 너머로 넓히고 작중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계의 매개체가 되는 인물들의 고통에 주목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윤홍길 소설의 인물들이 전쟁이나 가난 등의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 소망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6.25전쟁이 배경이 되는 작품 속 인물들은 한시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끝내 이 소망은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좌절되고 만다.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 일상의 불편함을 겪거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 인물들은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쉽사리 자신의 처지를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작중 인물로 하여금 무력감과 분노를 가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¹⁷⁾ 윤홍길 소설의 특징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인물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통의 문제에 천착하는 작가는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인물 관계를 문제 삼는다. 본고는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밝히기 위하여 윤홍길 소설의 중심소재가 고통이라고 본다.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가가 고민해 온 궤적을 작품 분석을 통하여 살피고자 한다.

16) 이해정, 「윤홍길 소설의 윤리적 주체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8면.

17) 강현국, 「소망과 현실」,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12면.

1.2. 연구의 시각

본고는 윤홍길 소설 전반을 아우르는 고통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윤홍길에게 있어 고통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고통에 대한 윤홍길의 사유는 고통을 주고받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그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고통은 신체적인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불쾌한 경험을 말한다.¹⁸⁾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 혹은 상황은 크게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불에 데거나 칼에 손가락을 찔렸을 때 생기는 신체적인 아픔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므로 필수불가결하다. 육체적인 것이므로 아픔을 일으키는 자극은 짐승과 사람에게 거의 비슷하게 작용하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작용이 가능한 인간에게 고통은 괴로움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가진다.¹⁹⁾ 괴로움, 즉 정신적 고통은 인간이 아플 때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우, 모독을 당하거나 심한 죄책감 혹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경험하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은 주로 단순한 신체적 아픔보다는 이러한 정신적 괴로움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고통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철학적 논의 중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변신론(辯神論, theodicy)이라 할 수 있다. 변신론은 신과 인간을

18) 엄정식, 「고통에 관하여」,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11, 234면.

19)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6-27면.

포함한 세계의 질서를 검토하여 신의 전지전능함을 변론한다.²⁰⁾ 대표적으로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만일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모든 고통과 질병, 불행과 악이 이 세계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이므로 의로우신 신은 악의 원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²¹⁾ 전능한 신이 고통이라는 악의 존재를 허락했다면, 그것은 분명 더 큰 선을 가져 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고통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벌로써, 더 훌륭한 상태를 위한 준비로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태도다.²²⁾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피상적이며,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²³⁾ 이에 최근 고통에 관한 논의는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²⁴⁾과 같이 고통을 윤리적 차원에서 살피는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윤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증가시키거나 자신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갈등은 결국 나의 행복 증진이나 고통 감소가 다른 사람의 행복 감소나 고통 증진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²⁵⁾ 윤홍길은 그의 소설에서 주로 다루는 관계도 바로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0) 김화성, 「리스본의 대지진과 악(惡) 개념의 근대적 전환」, 『대동철학』 49, 대동철학회, 2009, 289면.

21) 정해창 외, 『악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창, 1992, 43면.

22) 손봉호, 앞의 책, 88면.

23) 위의 책, 89면.

24) 레비나스는 현상에 있어서의 고통의 무의미성을 인정하되, 과거의 원인이나 미래의 목적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간 상호간의 윤리적 전망’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박정호, 「고통의 의미-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1, 131-159면 참조.)

25) 손봉호, 앞의 책, 128면.

윤홍길 소설의 인물들은 가족이나 재산, 자존심 등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지키고자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대상을 지키려는 소망을 이룰 수 없을 때,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깊은 확신을 가진다.²⁶⁾ 이들은 항상 주어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자신은 그 결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처지를 절망스럽게 여긴다. 이때 무력감이 불러오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결과는 분노다.²⁷⁾ 무기력한 인물들은 자신의 무기력함에 분노하는 한편으로 그 분노를 타인에게 전가한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여기며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투영한다.²⁸⁾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실한 대상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가 정당하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윤홍길은 타인에게 향하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자신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식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가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충분히 합리적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지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행

26)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이 자연을 정복하고 기술적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킬 정도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하지만 프롬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쌓은 부가 오히려 현대인으로 하여금 그 부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든 상황을 지적한다. 능력 혹은 의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결핍을 느끼는 현대인은 자신의 의지로는 외부 세계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Fromm, Erich(장혜경 역),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나무생각, 2016, 145-181면.)

27) 위의 책, 167면.

28) 위의 책, 168면.

위의 원인이 된다. 그는 비자발성과 잘못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비자발성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무지와 관련이 있고, 잘못된 행위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무지(보편 무지)와 관련이 있다.²⁹⁾³⁰⁾ 윤홍길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원리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윤홍길 소설이 고통과 보편적인 원리에 관하여 통찰하고, 마지막에 다르는 지점이 복수의 문제이다. 윤홍길이 바라보는 복수 행위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타인이 복수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이다. 윤홍길 소설에 나타나는 복수의 특징은 과거에 저질러진 개인의 복수 행위가 행위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가 불러온 영향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소되지 않고 남은 가족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며, 이는 결코 복수의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상황이 아니다.³¹⁾ 이를 통해 볼 때, 복수는 윤홍길이 초기 작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복수를 분노와 연결된 복수욕으로 보며 접근한다면, 복수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³²⁾ 윤

29) Aristotle(강상진 외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길, 2011, 79-86면.

30) 오이디푸스가 테베 오거리에서 만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일화를 예로 들면,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테베 오거리에서 만난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개별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무지와 관련되므로 오이디푸스의 행동은 비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1) 복수는 복수를 계속 배태시킬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어 가는 특성을 갖는다. 한 번 시작된 복수는 한쪽이 죽거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한은 멈출 수 없다. 이를 ‘복수의 지속성(continuity)’이라 명명할 수 있다.

(Ellul, Jacques, *Violence: Reflections form a Christian Perspective*, trans. Cecelia G. Kings, London & Oxford: Mowbrays, 1969, p.94(김철영, 「폭력에 대한 접근론과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 『교회와 신학』 46, 장로회 신대학교, 2001, 50면에서 재인용).)

32) 이종숙,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연구』 45, 한국서양고전학회, 2011, 184면.

흥길이 문제시한 복수가 ‘부당한’ 복수임을 상기할 때, 어떤 분노가 정당성이 있고 없는지 그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히 분노할 만한 일에 마땅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고 본다. 반대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진다.³³⁾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똑같은 모욕을 당해도 그것에 무감각한 사람이다. 이러한 분노에 무감각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능동적인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무화시키는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이다.³⁴⁾ 이에 따르면 ‘분노해야 할 때 마땅히 분노하는 사람’이란 부당함을 받은 사람 혹은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욕구를 가지는 사람이며, 이 욕구가 분노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스스로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든 분노가 즉시 복수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분노로 인한 행위는 나 자신과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기에 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³⁵⁾

윤흥길이 문제시하고 있는 부당한 복수란 바로 위와 같은 분노 감정에 의하여 촉발되는 복수를 가리킨다. 그의 소설에는 자신이 받은 모욕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또 모욕감을 불러일으킨 특정한 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임의의 다른 대상에게 복수를 행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33) Aristotles(강상진 외 역), 앞의 책, 146면.

34) 손병석,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93, 철학연구회, 2011, 43면.

35) 위의 논문, 38-39면.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고는 윤홍길 소설에 나타나는 고통의 양상과 의미에 관하여 논한다. 2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보편 무지의 양상을 살핀다. 이에 앞서 등단작 「회색 먼류관의 계절」을 통해 고통에 대한 윤홍길의 기본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윤홍길은 고통을 받지 않는 인물은 없으며,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편 무지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무력감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핀다. 이 작업은 「황혼의 집」, 「건넌목 이야기」, 「장마」, 「양」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야기한 인물이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양상들에 주목한다.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윤홍길은 인물들의 자기 정당화와 부합하지 않는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3장 1절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2, 「엄동」, 「빙청과 심홍」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윤홍길이 바라보는 고통의 속성은 그것을 야기한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본다. 이는 「무제」, 「꿈꾸는 자의 나성」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4장에서는 윤홍길이 초기 작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복수라는 문제로 귀결됨을 살핀다. 4장 1절에서는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한 번 발생한 복수의 영향력이 후손 세대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이는 『완장』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4장 2절에서는 복수의 굴레를 멈춤으로써 복수가 야기하는 고통이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윤홍길이 고심한 흔적을 『산에는 눈 들에는 비』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한다.

2.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보편 무지의 양상

윤홍길은 1968년에 등단한 이후로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 활동에서 고통에 관한 그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 인간과 고통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전제는,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고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타인이 받는 고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윤홍길의 기본적인 의식이다.

이러한 작가의 기본적인 인식은 등단작인 「회색 면류관의 계절」(『한국일보』, 1968)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⁶⁾ 이 작품은 군복무를 하던 시기에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던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³⁷⁾ 공군부대의 병장으로 복무 중인 병현은 학비가 없어 등교 정지를 당한 동생 병기가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가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받고 우울해한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 묶여 있는 몸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러한 무력감은 특히 일과가 끝난 후 오락실에서 접어든 신문에 실린 퀴즈 문

36) 이 소설은 작가의 등단작임에도 그 동안의 연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윤홍길 초기 소설 연구가 주로 단편집 『황혼의 집』과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중심으로,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거나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다루는 작품들에만 주목해온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은 두 가지의 경향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없었다.

37) 가출한 ‘병기’가 윤씨의 아우요, ‘누나’는 윤씨의 병역기간 3년 동안 전북대학교 교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월급으로 부모형제의 의식주를 한몫으로 떠맡았던 윤씨의 누나이며 ‘너’는 공군에 복무중이던 윤씨 자신이다. (이문구, 「한 켄레 구두로 산 사내-尹興吉이란 小說家」,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비평사, 1979, 290면.)

제를 풀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퀴즈의 상금이 째깍한 데다 쉽게 풀 수 있지만, 정작 응모를 위한 관제엽서를 당장 구할 수 없는 처지에 그는 비참함을 느낀다. 우울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술집에 다녀오던 병현은 우연히 들른 기지교회에서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상을 마주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천 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가 받았을 고통을 상상하는 순간, 병현은 뜻밖의 환각을 본다.

다리가 비끗하면서 자빠지는 순간, 병현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아버지가 가시관을 쓰고 있지 않은가! 머리에서 피를 콧물 쏟으며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 아닌 아버지였다. 피를 쏟는 건 뇌일혈 때문이 아니었다. 머리를 뺑 돌아가며 사정없이 찢어대는 굵다란 가시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움푹 꺼진 눈을 들어 무엇인가를 애처롭게 갈구하고 있었다. 병현은 벌벌 떨리는 몸을 가누고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지리지게 놀랐다. 아버지의 머리를 찢르는 것은 가시가 아니고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들과 바로 저 자신이었다. 이렇게 한 가족이 주렁주렁 꿰어져 관을 이루고, 그 관은 아버지의 머리를 찢러 피를 흘리게 하고 있었다.³⁸⁾

병현이 본 환각은 그리스도상이 다른 아닌 자신의 아버지로 변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환각 속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찢르는 것은 가시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었다. 이를 통하여 병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겪어왔던 고통을 새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이제 자신이 그 몫을 이어받아야 함을 실감하고, 당장 관제엽서부터 쓸 것을 다짐한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은 아버지의 고통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던 병현이 교회에서의 환각체험을 계기로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대상이 바

38) 윤홍길, 「회색 면류관의 계절」, 『오늘의 작가 수상작품집-빙청과 심홍』, 시문출판사, 1989, 34면.

로 자신이었음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병현의 심경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물이 그의 상관인 장하사이다. 장하사는 “병(兵)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재미로 세월을 보내는”³⁹⁾ 인물이다. 또한 남색가인 장하사는 병현이 부대에 배속 받은 지 며칠 안 되었던 무렵에 그를 사관실로 불러 해괴한 짓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런 탓에 평소 병현은 장하사를 “재수 없”게 여기고 가능하면 그를 피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현이 술집에 갔을 때 옆방에 장하사와 그의 동료들이 있었고, 이들을 엿보던 병현은 장하사가 그의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옆방엔 진기한 풍경이 벌어져 있었다. 어지간히 숫기 좋은 색시 하나가 홀랑 드러낸 넓적다리를 장하사의 코앞에 들이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동료에게 양쪽 팔을 단단히 붙잡힌 장하사는 알코올 탓만도 아닌 시뻘건 얼굴을 외로 쏜 채 뒤로 달아나려고 사력을 다하여 버둥질치고, 나머지 하사들은 색시와 장하사의 주위를 싸고돌며 서너 장의 지폐를 깃발처럼 흔들어 요란한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장하사는 결국 색시와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문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다. 지폐는 분배되어 투자한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되들어가고, 치마를 내린 색시는 허전한 눈으로 하사들의 주머니를 훑음거리고, 하사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태연히 남은 술을 치우고 있었다. 그것은 한꺼번에 많은 생각들을 불러 일으키는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었다.⁴⁰⁾

장하사의 동료들은 남색가로 알려진 그가 정말 여자에게는 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지를 두고 내기를 벌인다. 이때 장하사는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 지루한 군 생활에 재미를 가져다주는 흥밋거리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함부로 대해오던 장하사가 도리어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은 병현에게 있어 “매우 충격적”으로

39) 위의 책, 25면.

40) 위의 책, 32-33면.

다가온다. 장하사는 평소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를 즐겨하던 인물로, 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고통과는 멀어보이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장하사도 타인에 의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병현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기지교회에서 병현은 술집에서 달아났던 장하사를 다시 마주친다.

교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문안을 기웃거리려 보았다. 아무도 없다. 딱딱한 나무 결상들만이 불빛을 희미하게 되쏘고 있었다. 되돌아섰다. 그러자 소리를 죽여 가며 흐느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강단 저쪽에 웬 시커먼 덩치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고서야 그것이 장하사임을 알았다. 장하사도 흐느껴 울 때가 있구나.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었다. 장하사는 울지 말고 로마 교황님 같은 분만 올라가는 법은 없으니까.⁴¹⁾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장하사를 보며 병현은 장하사든 로마 교황님이든 누구나 고통을 받고 괴로워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병현의 시선이 장하사에서 그리스도상으로 옮겨지면서 병현은 자신의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에까지 인식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장하사를 통하여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역시 고통 받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후 윤홍길 소설을 관통하는 전제가 된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를 드러내는 과정을 화자가 우연히 접한 아버지의 환각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방식으

41) 위의 책, 33-34면.

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화자가 아버지에게 고통을 가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으며, 이는 비자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의 일반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후 이어지는 윤홍길의 작품 활동은 이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윤홍길은 자신에 대한 분노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이를 정당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타인에게 분노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행동을 시행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유발한다.⁴²⁾ 이때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보편 무지의 상황이 문제시된다. 윤홍길은 보편 무지가 나타나는 원인이 타인이 처한 사정,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무관심하거나 아예 파악을 거부하는 데 있다고 본다. 작가는 모든 인물에게는 타인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을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내가 꼭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사정**들을 전처럼 다시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다.⁴³⁾

에레나는 청년이 보이는 순진성 때문에 몹시 화가 나고 비위가 상했다. 아마 그것은 그의 진심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꿈을 꾸고 있는 셈이었다. 그 꿈을 깨워 줄 필요가 있었다. 꿈과 **현실** 사이가 얼마나 먼 것인가를 알려 줄 필요가 있었다.⁴⁴⁾

42)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한다. 분노감이 내적인 감정 경험이라면, 공격행동은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외현적인 행동을 말한다.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면.

43) 윤홍길, 「직선과 곡선」,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46면.

44) 윤홍길, 「뚝대도 아니 달고」,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171-172면.

“우리는 돌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개 사람들이 느끼는 절실한 **감정**을
곧이곧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⁴⁵⁾

고통을 재확인하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그 고통을 눈물로 나누어 가지려는
용선이 모녀의 백적지근한 해후가 어째서 제삼자인 김 보모에겐 고스란히 흐
느낌으로 통하는지 당최 짐작할 수가 없었다.⁴⁶⁾

그가 현재 끌어안고 있을 법한 말 못 할 **속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다.⁴⁷⁾

작가는 인물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속)사정”, 처한 “현실”, “처지”
와 그로 인한 “감정”이 있으며, 이를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
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타인에 대한 오해나 거부감, 심할 경우
분노감, 혐오감 등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작가는 끊임없이 인
물을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파악을 거부하는 인물들을 문제 삼고 있다. 윤홍길 소설에 자주 등장하
는 모티프인 소문 역시 인물이 처한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이 추측만
무성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윤홍길 소설에 나타나는 보편
무지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보편 무지의 양상은 ‘편견으로 인
한 보편 무지’, ‘무력감으로 인한 보편 무지’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먼저 편견으로 인한 보편 무지의 양상부터 살펴본다.

편견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집단의 사람들을 비
방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 감정 또는 행동을 말한다.⁴⁸⁾ 사회에 속하는 모

45) 윤홍길, 『묵시의 바다』, 120면.

46) 윤홍길, 『순은의 녀』, 178면.

47)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꿈꾸는 자의 나성』, 218면.

든 사람들은 어떠한 집단에 대한 소속여부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실존을 자각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집단에 속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다는 느낌(the sense of belonging)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속할 뿐 아니라 그 성원이 됨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집단을 의식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내집단이라고 한다. 반면 자신과 구별 짓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속하고 자신은 그 성원이 아니라고 느끼는 집단을 외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⁹⁾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또 한편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획일적인 형태로 볼 개연성이 있다.⁵⁰⁾ 무지로 말미암아 외집단 구성원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⁵¹⁾ 이렇게 외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적대적인 태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보편 무지의 양상을 윤홍길의 「황혼의 집」과 「건널목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황혼의 집」(『현대문학』, 1970)은 6.25전쟁 중에 새 집으로 이사온 ‘나’가 이웃에 사는 경주네 가족과 겪는 이야기를 다룬다. 경주가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와 들려오는 소문을 통하여 경주네 가족의 불행이 차근차근 밝혀진다. 원래 유복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경주네 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주네 오빠가 빨치산이 되어 집을 떠났고, 동생이 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던 경주네 큰언니는 협잡꾼한테 걸려 화를 당한 뒤 그만 스스로 목을 매고 만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경주네 작은언니마저 집을 나가버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주네 어머니는 붉은 햇살이 주막 창문에 번득이는 황혼 무렵이면 떠나간 자식들이 그리워 처참한 소리로

48) Brown, Rupert(박희태·류승아 역), 『편견사회』, 학지사, 2017, 5면.

49)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97, 149면.

50) Brown, Rupert(박희태·류승아 역), 앞의 책, 93면.

51) 위의 책, 150면.

울부짖는 일이 일과가 되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나’는 경주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증오의 시선을 받고 당황하게 된다.

계집애는 울타리 사이나 전봇대 뒤에 숨어서 문 밖을 나서는 나를 불시에 습격했고, 어딜 가나 짓궂게 따라다니며 마구 할퀴려 들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살쾅이처럼 몸이 빠르고, 못생긴 얼굴에서 번쩍이는 두 눈은 그애가 나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도둑놈, 도둑놈 자식! 똥져라, 똥져라, 도둑놈 자식!”

끈덕지게 쫓아다니며 외는 이 불명예스러운 욕설로 나는 깊은 충격을 받고 자초지종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아낙네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곧 계집애가 것처럼 나를 적대시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나 한번 어두워진 어머니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⁵²⁾

단지 이사를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으로부터 알 수 없는 증오를 받으며 “도둑놈 자식”, “똥지라”는 욕설을 듣는 것은 ‘나’에게 있어 “깊은 충격”이었다. 후에 아낙네들의 설명에 의하여 경주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인이 밝혀지는데, ‘나’의 가족이 이사 온 집은 원래 경주네 소유였으나, 해방이 되면서 낯선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집을 빼앗기고 경주네는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경주네는 철공소 옆으로 물러갔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경주 모녀는 ‘나’의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자신들을 내쫓기게 만든 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증오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큰언니가 자살하고 오빠가 빨치산 활동을 위하여 집을 나간 와중에 작은언니마저 가출하는 등 가족의 파괴를 겪고 있는 경주에게 있어 남은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심리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주의 태도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그 이웃이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52) 윤홍길, 「황혼의 집」, 『황혼의 집』, 문학과지성사, 2007, 15면.

알 수 있을 리 만무한 채로 이사 왔더니 이웃집 아이에게 비난을 받으며 마음의 고통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는 경주가 집을 빼앗기게 된 내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경주의 오해를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경주에게 자신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님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주 앞에서 ‘나’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고 원활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계집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갈퀴를 휘둘렀다. 그러나 살점을 뜯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손을 거두더니, 피식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리만큼 관대한 표정을 지었다. 경주는 내 말을 이해했을까?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가 선량한 사람인 줄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면, 그것은 나의 서툰 설득 덕분이 아니라 더듬고 허둥대며 땀 흘리는 나의 우스꽝스런 노력이 그애의 눈에 너무도 가상스럽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⁵³⁾

“서툰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나’를 이해해준 이유는 ‘나’의 “우스꽝스런 노력” 속에서 ‘나’가 고의로 경주의 집을 빼앗으려 한 의도가 없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주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나’의 행동이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나’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음으로 「건널목 이야기」(『현대문학』, 1971)는 건널목을 관리하는 젊은이 근섭과 노인인 김 씨에 관한 이야기로, 이들의 과거 회상이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근섭은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건널목 관리인이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인물이다. 그는 가난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모두 싫어하는데, 특히 떠는 동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에게 있어 떠는 동작은 눈 속에 고무신이 파묻힌 채로 겪었던 추위와,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며 “같이 죽자”고 이불

53) 위의 책, 16면.

속으로 끌어당기던 어머니의 떨리던 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유년시절을 보낸 그이기 때문에 노인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 때마다 그는 애꿎은 노인을 타박한다.

“떨어봤자 별수 없어!”

자신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감정과 창피한 생각 때문에 그는 아무렇게나 외쳤다.

“아무리 떨어도 뽀죽한 수는 안 생긴단 말이오!”

비로소 노인의 왼발이 다소곳해졌다. 노인은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했다. 그러나 늙은이가 주착없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싶어 영문도 모르면서 절끔 기어드는 약자의 처지를 감수하기로 결심한 눈치가 여신했다. 그는 노인에게 미안했다. 말할 수 없이 미안했다.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더욱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그는 늙은 간수를 향하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버렸다.

“백날을 떨고 있어 봐요, 동전 한 닢이나 생기나!”⁵⁴⁾

과거의 근접은 “아무리 떨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함을 느꼈으며, 이 무력감은 건널목 관리인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단조로운 업무만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을 견디는 방법은 평소 묵묵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김 씨를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라도 자극하여 김 씨의 반응을 살피는 데서 재미를 찾는 것이다. 그에게 일어나는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두 달 전부터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 건널목으로 투신을 시도하러 나타나는 한 임신한 가족계획원을 막는 일이다. 그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정 죽고 싶다면 그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을 그녀에게 알려주는 비정한 면모 또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방탕

54) 윤홍길, 「건널목 이야기」,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비평사, 198-199면.

한 생활을 그만두지 못하는 큰아들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다. 군인인 큰아들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월남전선에 지원하여 전사해 버리겠다고 아버지를 협박하며 유흥비를 뜯어낸다. 투신을 시도하는 가족계획원의 임신 또한 큰아들의 겁탈로 인한 결과이며, 가족계획원은 자신의 소행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큰아들의 태도에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주목할 점은 가족계획원에 대하여 근접이 보이는 태도이다. 근접은 가족계획원의 원치 않는 임신이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가족계획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꼴을 보아하니 아직도 애아버질 못 찾은 모양이요. 하기가 이 마당에 나요, 하고 선뜻 나설 놈이 누가 있겠소만. 애당초 가족계획을 지도한답시고 처녀가 밤늦게 돌아다닌 것이 잘못이었지. 말하자면 그것은 사내들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로 짓이니까(갑자기 그는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하여 목에다 힘을 넣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렸다)—아하, 택은 자녀가 너무 많으시군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히 길러야 해요. 바깥양반은 콘돔을 쓰시고 아주머닌 경구 피임약 오이기논을 복용하세요, 터울을 두시는 텐 정관수술이나 루우프 장치가 제일 안전하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무엇하지만 그걸 하게 되면 보상금쪼로 나라에서 팔백원씩을 지급한답니다, 하지만 있으나마나 귀찮기만 한 그것 실로 좀 묶고 팔백원이면 어디예요, 어찌구저찌구—이런 소리나 까발리고 다니는 여자한테 사내가 덤비지 않으면 어느 묵덕보살한테 덤비겠어요. 모르면 몰라도 애아버질 찾긴 좀체로 힘들 겁니다.”

너무 열중한 나머지 순수한 자기 의견인 마지막 말마저도 그만 착 감기는 여자 목소리로 개진해 버렸다.⁵⁵⁾

근접의 주장은 피해자인 가족계획원에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가족계획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

55) 위의 책, 193면.

러나는 성생활과 관련된 그녀의 직업만을 가지고 그것을 사건과 자의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근접의 주장이 틀렸음을 밝히기라도 하려는 듯, 소설의 마지막에서 김 씨는 다시 투신을 시도하러 온 가족계획원을 직접 막아서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아기를 낳으라고 부탁한다.

“아무 걱정 마라, 악아. 염려 말고 낳거라, 악아.”

노인이 헐떡이는 소리로 말했다. 노인의 손이 쉴 새 없이 가족계획원의 어깨를 쓰다듬어 내리고 있었다.

“그깟놈일랑 생각 말고 우리 모다 한집서 뉘야 살자. 사람이 늙으면 손주녀석도 보고 싶은 뱀이다. 나도 인자는 늙었다.”

노인의 가슴에 기대어 가족계획원은 간신히 두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열차에서 뛰어내린 기관사가 여자의 팔을 꼭 붙잡았다.

“이런 년들 때문에, 이런 년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관사 하나가 여자의 따귀를 갈기려들었다.

“건방진 소리 작작 해! 수고한 건 당신네들뿐만이 아니란 말야! 우리 편에서도……”

기관사의 올려진 팔을 거머쥔 채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 편에서도 하마터면 두 사람이나 죽을 뻔했잖아.”

시그널에 파랑불이 켜졌다. 임시 화물열차는 예정 시간보다 십여분 늦게 역구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차웁구나. 우리 여그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이 여자의 무거운 몸을 부축하고 앞으로 이끌었다. 그들 뒤를 따르면서 청년은 새삼스럽게 한겨울을 의식했다. 정말 이렇게 추운 날은 밖에서 떨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런 날씨엔 간밤에 시렁에다 얼린 홍시를 먹으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나 귀를 기울여야 제격인데. 할머니의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살었드란다”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대부분이었지.⁵⁶⁾

56) 위의 책, 217-218면.

가족계획원과 그녀의 자식을 “우리 편”이라고 여기는 김 씨의 태도는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김 씨가 추위에 떠는 여자를 쓰다듬고 부축하는 장면은 근접에게 남아있는 떨림의 기억과 대비된다. 유년시절의 근접에게는 추위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던 데 비하여, 죽음만을 생각하던 가족계획원에게는 그를 “이끌어”줄 김 씨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무력감으로 인한 보편 무지의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윤홍길 소설의 인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무력감을 가진다. 이들은 자신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전적으로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자 한다. 그리고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잊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장마」와 「양」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장마」(『문학과 지성』, 1973)는 한 집 안에 사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겪는 갈등과 화해가 주된 줄거리를 형성한다. 각각 빨치산과 국군으로 활동하는 아들을 둔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외할머니가 빨치산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부은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다. 그러던 중 소경 점쟁이로부터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짜와 시간을 전해들은 할머니는 온 집안사람들을 동원하여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이 아니라 구렁이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할머니가 실신한 사이에 외할머니는 그 구렁이를 마치 진짜로 돌아온 사돈의 아들처럼 대우하며 배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화해하고 며칠 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지긋지긋했던 장마가 끝난다.

이러한 소설의 줄거리 가운데서 주목할 부분은 ‘나’가 맥고자의 사내에

게 삼촌이 다녀간 일을 말해버린 사건이다. ‘나’의 친가 식구들은 빨치산인 삼촌이 자수할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삼촌을 집안으로 끌어 들였다. 오랜 시간의 힘겨운 설득 끝에 삼촌으로부터 자수를 하겠다는 약조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때마침 우연히도 마당을 걷던 외할머니의 발소리를 위협으로 감지한 삼촌은 그 길로 뒷문을 박차고 나가 도주하여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소란 속에서 잠에서 깨어있던 ‘나’에게 고모는 삼촌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웬 집안이 큰 일”나니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튿날 ‘나’는 맥고자를 쓴 사복경찰의 계략에 빠져 결국 그 사실을 사내에게 말하게 된다. 배고픈 ‘나’에게 경찰은 초콜릿을 가지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한 것이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상한 과자 위에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꿀꺽꿀꺽 넘어가는 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중략)...

어른의 비상한 수완을 나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⁵⁷⁾

이 사건으로 ‘나’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은 끝에 일주일 만에야 오른쪽 다리를 절름거리며 풀려나오게 되고, ‘나’는 할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된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 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⁵⁸⁾

57) 윤홍길, 「장마」, 『황혼의 집』, 문학과지성사, 2007, 86-87면.

아무튼 우리 할머니는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집안에서 얼굴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뺨이나 뺨은 듯이 질색을 했고, 이야기는 물론 나하고 한방에서 밥 먹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해버렸다.⁵⁹⁾

할머니는 ‘나’를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사람 백정”으로 여기고, 마치 뺨이라도 뺨은 듯이 질색한다. 어린 ‘나’에게 할머니에게 받는 혐오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할머니는 ‘나’가 삼촌의安危보다도 과자 한 조각을 중요시하였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향한 할머니의 혐오와 오해는 사실 할머니 자신을 향한 무력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전부터 할머니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정은 삼촌이 집에 들렀던 날 최고조에 달한다. 눈앞에 나타난 아들을 만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녀가 아들을 위하여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결국 다시 도망쳐나가는 그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 아들들의 신변이 위협받게 되자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이 모두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나’에게 분노를 집중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비롯한 ‘나’의 가족이 큰 고통에 빠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무엇보다도 순진한 소년인 ‘나’는 맥고자 사내가 “나한테 그런 얘길 들었다는 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⁶⁰⁾을 어기는 “치명적인 배신”을 하리라는 어른의 교활함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나’가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알았다라면 당연히 삼촌이 다녀간 일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이후에 ‘나’가 느끼는 후회와 죄책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8) 위의 책, 78-79면.

59) 위의 책, 98-99면.

60) 위의 책, 98면.

사내의 모습이 눈에 떨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은 나였다. 그의 출현이 나한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일껏 사그라지려던 죄책감에 대한 무서운 채찍질이면서 새로운 일깨움이었다. 과자 한 조각에 제삼촌을 팔아먹는 사람 백정이라고 소리소리 외치던 할머니의 저주가 당시 그 대로의 형태로 또렷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던지는 목침덩이에 맞아 코피를 흘리면서 나는 그날 저녁에 벌써 죽었어야 옳은 몸이었다. 사내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에 짓는 아버지의 우울한 표정을 읽는 일이 내게는 죽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다.

...(중략)...

정말이지 나는 하루 앞으로 닥쳐온 그 ‘아무 날 아무 시’가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너무도 두려워 세상 끝날까지 오늘날이 한없이 계속되기를 어느 앞이나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아버지가 겪는 고통에 비기면 역시 내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리라.⁶¹⁾

‘나’는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맥고자 사내의 출현이나 심지어 온가족이 염원하는 삼촌의 귀환조차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나’의 태도에겐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와 고통스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로 인한 비자발적인 행위가 고통을 동반하고 후회를 일으키는 경우를 ‘마지못해 비자발적으로 한 것’(akousion)이라고 명명하며, 이 경우는 연민과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⁶²⁾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양」(『현대문학』, 1974)은 6.25전쟁

61) 위의 책, 118-119면.

62) 예로 교실에서 친구를 놀래킬 목적으로 결상을 갑자기 빼버렸는데, 뒤로 넘어진 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결상을 뺐던 아이는 친구를 해칠 목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친구를 해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후회를 하며 고통스러워하겠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를 거스를 수 없다.

(Aristotle(강상진 외 역), 앞의 책, 82-84면.)

중에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 한 가족이 겪는 불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의 동생 윤봉이는 보통 아이보다 미성숙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이다. 인공 치하가 되었을 때 윤봉이는 인민군 병사의 연설을 따라하고 군가를 부르면서 평소에 받지 못하였던 칭찬과 관심을 받는다. 그는 연설과 군가에 담겨 있는 정치적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가족에게 받지 못하는 칭찬과 관심을 순수하게 원하는 것이며,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윤봉이를 치켜세움으로써 인민군에게 동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문제는 수복이 된 후에도 윤봉이가 인민군 군가를 부르고 다니며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윤봉이에게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직장을 잃은 아버지가 노무자로 차출되어어나가는 불행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나’는 윤봉이 때문에 집안의 불행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네 살짜리 악마”라고 여기며 미움의 감정을 막내에게 집중시킨다.

네 살짜리 악마. 언제부터인가 묘한 미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말고는 연거푸 닥치는 술한 불행들을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를 흑심한 가난과 낙담 속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의 시련——거기에는 반드시 윤봉이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녀석이 항상 유령의 그림자처럼 배후에 도사리고 앉아 한톨 한톨 놀부의 박씨를 물어다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가정 전체를 파멸로 이끌도록 악마가 시켜서 보낸 우리 윤봉이.⁶³⁾

‘바보’ 윤봉이가 일부러 가족들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하여 군가를 부르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윤봉이는 분명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를 노무자 행렬에서 빼내기 위하여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홍역을 앓던 윤봉이가 죽게 되었을 때 윤봉이를 웬수라 부르던 어머니의 미움은 미움뿐이 아니었

63) 윤홍길, 「양」,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1997, 38면.

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⁶⁴⁾

“저 웬수가 윤뽕이를 잡아먹었다네. 시상에 이럴 수도 있당가. 우리 윤뽕이를 잡아먹었다네.”

“내가 안 찍었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만있다가는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쓸 판이었다. 나는 항의를 되풀이했다. “내가 찍인 게 아니란 말여!”

“니놈이 안 찍었으면 누가 찍었냐? 우리 윤뽕이를 찍인 게 누구란 말이나, 이놈아!”

어머니는 내 입에서 항의가 나올 때마다 달려들어 한바탕씩 두들겨패곤 했다. 나는 결코 윤뽕이를 죽인 적이 없다. 그러나 누가 죽였느냐고 묻는 데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는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다.

“낭중예라도 우리집 양반이 살아서 돌아오면 뭐라고 대답헌디야. 뭐라고 둘러댄디야.”

방바닥을 때려가면서 어머니는 몹시 서럽게 울었다. 울음 반 녀두리 반으로 어머니는 그 밤을 꼬박 밝혔다.⁶⁵⁾

‘나’는 평소 윤뽕이를 향해 “그 웬수녀르 것 아직도 안 뉘졌다냐?”라고 하던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녀가 정말 윤뽕이가 죽기를 바란다고 오해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윤뽕이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돌릴 때 그가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된다. 어머니는 윤뽕이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이 너무나 큰 나머지 죽음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윤뽕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고통스러워한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한다. 소설의 끝에 ‘나’와 어머니는 윤뽕이를 뒷산에서 불에 태워 보낸다.

64) 오생근, 「개인과 사회의 역학」, 위의 책, 301면.

65) 윤홍길, 「양」, 위의 책, 68-69면.

그곳에서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나는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치솟는 화광 위를 우리 윤봉이는 티끌이 되어 연기가 되어 냄새가 되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윤봉이는 제 몸을 살라 제가 지냈던 바보와 고집으로 뒷산을 채우고 들을 가득 채우고 그게 모자라 나중에는 하늘마저 배꼭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 대신 불이 우리 윤봉이한테 덤벼들어 손과 발을, 동체와 머리를 그리고 언제나 엉터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두 눈과, 군가를 흉내내던 어눌한 입을 남김없이 아귀아귀 삼키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속에서 무엇이 울컥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입에 손가락을 넣어 먹은 걸 꾸역꾸역 토해내면서 나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이 아무래도 분하고 억울해서 나는 불이 다 사그라져 다시 어둠 속에 온전히 휩싸인 마을 뒷산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 울었다.⁶⁶⁾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뒤 동생의 제사를 지내면서 보이는 구토 반응을 통하여 ‘나’가 느끼는 고통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죄의식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구토라고 할 수 있다.⁶⁷⁾ 「양」은 순진한 아이들이 본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가족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을 지켜줘야 할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황을 그린 비극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초기 윤홍길 소설들은 모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66)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1997, 70면.

67) 김중옥, 「서기원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자기 모델과 고백의 욕망」,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01, 167면.

3.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 비판

3.1. 책임에 대한 무지의 양상

1970년대 중반 이후 윤홍길의 의식은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피는 데서 한 단계 나아간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야기한 인물이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양상들에 주목하고 이를 문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과 같은 ‘선량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으므로 고통을 겪는 상대방은 자신이 고통을 줄 만큼 나쁜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여기는 것이다.⁶⁸⁾ 하지만 윤홍길은 인물들의 자기 정당화와 부합하지 않는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작가의식이 담긴 「어른들을 위한 동화」 2, 「엄동」, 「빙청과 심홍」을 살피고자 한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2(『월간문학』, 1975)는 환상적인 줄거리를 바탕으로 책임의식이 부재한 박 씨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자신의 집을 “자기가 지배하는 작은 왕국”이라 여기며 집 울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천부의 위엄과 완력”으로 쉽사리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의 왕국에 갑자기 잉꼬가 나타나 매일 밤마다 가족을 습격하며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마을 사람들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알고 보니 그 잉꼬는 박 씨네 아이들이 기르던 애완용 잉꼬로, 아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것이었다. 잉꼬는 아이들의 학대로 인하여 새끼들을 모두 잃었으며, 자신 또한 한쪽 눈에

68) Aronson, Elliot(박재호 역), 『인간, 사회적 동물』, 탐구당, 2014, 344면.

상처를 입은 후에야 박 씨네 가족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랬던 잉꼬가 복수를 위하여 다시 돌아와 박 씨네 아이들의 눈을 똑같이 공격하는 믿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참다못한 마을 사람들은 박 씨네 가족에게 잉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마을을 떠나라고 압력을 가한다. 마을에서 쫓겨나도 갈 곳이 없는 처지인 박 씨는 잉꼬가 제물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판단하고 막내아들 종락을 희생시킨다. 종락이가 잉꼬의 눈을 찔러 멀게 한 장본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막내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잉꼬의 습격은 멈추지 않고, 박 씨는 막내 바로 위의 아들인 종성을 또 서슴없이 바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아들 종술을 비롯한 가족들이 박 씨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진지하게 토의해 본 결과 저희 형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님을 아버님으로 인정치 않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새의 습격으로부터 자식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대서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능력의 있고 없음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자책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항해도 시원찮을 이때 아버님은 가장이라는 절대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종락을 강제로 사지에 떨어뜨림으로써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자식들이야 어찌 되건 말건 당신 한 목숨 보전에만 급급하는 저열한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⁶⁹⁾

“아버지 노릇”을 못했으므로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종술의 말은 현재 가족이 처한 사태의 원인이 박 씨에게 있다는 실상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알고 보니 잉꼬에게 고통을 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박 씨에게 있었음이 다음 종술의 말에서 드러난다.

69) 윤홍길, 「어른들을 위한 동화」 2, 『꿈꾸는 자의 나성』, 창작과비평사, 1987, 70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는 종락이 잘못도 종성이 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님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누대에 걸친 가세의 쇠락이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유약한 심성에 기인한다시며 저희 형제를 거칠게 단련시키셨습니다. 혹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고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애들보다 더한 매로 혹독하게 다스리시며 늘, 담대하고 지독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아버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옳은 줄로만 알고 순종해 왔습니다. 잉꼬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들을 애들 노리개감으로 제공한 사람도 아버님이시고, 또 종성이, 종락이가 새들한테 난폭하고 잔인하게 구는 걸 보고 흠족해하면서 더욱 잔인하고 더욱 난폭해지라고 자꾸 충동질하고 격려한 사람도 아버님입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든 허물을 철부지 자식들한테 씌워 제물로 바치는 우를 범하셨습니다. 아버님 자신이 차례를 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⁷⁰⁾

박 씨는 아들들의 유약한 심성을 거칠게 단련시키려 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새들에게 난폭하고 잔인하게 굴도록 충동질하였다. 그럼에도 박 씨는 모든 허물을 자식들에게 돌림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박 씨의 나머지 가족들은 박 씨를 제물로 바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다. 결국 박 씨는 제물로 바쳐져서 어둠 속에 홀로 선 채로 잉꼬의 복수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다.

이 소설에서 실질적으로 잉꼬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은 박 씨다. 아버지는 잉꼬들을 “노리개감”으로 취급하였으며, 또 자식들 역시 자신이 만든 왕국의 부하처럼 대하였다. 박 씨는 가세가 쇠락하는 위기의 상황을 스스로 타개하지 못하는 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그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식들에게 돌린 것이다.

70) 위의 책, 70면.

작가는 자신이 맡은 역할의 책임은 무시한 채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박 씨 같은 자는 그 역할을 가질 자격이 없음을 동화라는 형식을 빌려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다.

「엄동」(『현대문학』, 1975) 역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그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박은 광주대단지사건 이후 성남으로 이사와 서울의 출판사로 출근하는, 아내와 둘 지난 아들 한 명을 둔 가장이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겨울날, 퇴근한 박은 성남으로 돌아가는 막차 버스의 만원 승객에게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 술자리까지 미루며 정류장에 섰지만 폭설로 인해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받는다. 이때 한 아가씨가 박에게 혹시 여관에 갈 예정이라면 자신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박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일단 버스가 다시 운행되기를 기다리며 함께 다방으로 가서 대화를 나눈다. 서울의 일본어 학원에 다니는 영순은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향도 없이 살아오다 집이 헐리고 성남에서 살게 된 철거민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영순에게 박은 시종일관 우월감을 유지한다.

박은 커피 한 잔을 그토록 감식(甘食)하는 사람을 이제까지 상대한 적이 없었다. 양손으로 찻잔을 꼬옥 감싸쥔 채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듯 아껴 마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루 감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무척 재미가 났다. 박은 연장자답게 시종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대해주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곧 우월감의 표시였다. 좌석버스에 앉은 사람이 입석버스에 선 사람을 볼 때 갖는 그런 종류 그런 정도의 우월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손아랫사람에게 작으나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다서가 아니라 그가 평소부터 거개의 성남 주민을 상대로 느껴온 정신적 우위의 재확인 행위인 셈이었다.⁷¹⁾

71) 윤홍길, 「엄동」,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1997, 92면.

커피 한 잔을 “한 모금 한 모금 아껴 마시”는 영순과 이에 재미를 느끼는 박의 모습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아비투스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⁷²⁾ 박이 느끼는 우월감에는 성남에 자의적으로 이사한 자신과 철거민인 영순을 확실하게 구분 짓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박의 예상과는 달리 영순은 자신이 성남에 산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박에게 있어 그렇게 자신의 거주지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은 영순이 처음이었다.

박의 경우는 그녀와 전연 판판이었다. 어느 좌석에서든 거주지 얘기가 나오는 걸 무척 꺼리고 싫어하는 편이었다. 어쩌다 그런 이름난 곳에 자릴 잡게 되었는가고 사람들은 그를 비상한 호기심으로 대하는 눈치가 완연했다. 아니다. 그 자신 어떤 내면의 찢림에 영향되어 지레 그렇게 겁먹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서둘러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버릇이 생겼을 것이다. 하여튼 그는 거주지 말이 나올 적마다 자기가 문제의 땅으로 이주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임을 째째 강조하곤 했다. 자신의 그와 같은 언동에 일말의 염오를 느끼면서도 어느덧 고질이 돼버린 그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비단 박의 경우뿐만이 아니었다. …(중략)… 그곳에 이주한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곳 토박이들은 원주민 또는 원주민촌이란 말을 미개와 낙후를 상징하는 데 쓰지 않고 긍지를 나타내는 번쩍번쩍 도금된 어휘로 즐겨 사용한 다. 그들은 수적으로 단연 우세한 철거민들 세계에서 조상 대대로 불박고 살아온 경기도 양반으로서 족보 있음과 뼈대 굳음과 핏줄 연연함 위에 시방도 전담마지기께나 지니고 있음을 언필칭 과시하려 한다. 그들만은 못하나 그래도 신참자들 역시 철거 이주민들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점에서는 도토리 키 재기로 매일반이었다.⁷³⁾

72)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2, 43면.

73) 윤홍길, 앞의 책, 94-95면.

성남에는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과 박의 경우처럼 광주대단지사건 이후에 성남에 이사 온 “신참자들”, 그리고 영순과 같은 “철거 이주민”이 마치 위계가 있는 것처럼 혼재하고 있다. 박은 철거 이주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면서도 “하루빨리 이놈의 성남이란 데를 벗어나 서울로 들어가”⁷⁴⁾고 싶어 하고 거주지 말이 나올 적마다 “서둘러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자신은 “신참자”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원주민”과 “신참자들”이 “도토리 키 재기로” 자신들을 철거 이주민과 구별 짓고자 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정서상 철거 이주민들이 일반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리라는 정황 때문이다. 광주대단지사건 직후 언론은 예외 없이 이 사건에 ‘난동’이란 꼬리표를 달았고,⁷⁵⁾ 이주민들을 ‘이질적인 대중’이라 호명하였으며, 사건 직전 정부 보고서에도 이들의 비정상성을, “식생활에 쪼들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경질적이며 저녁에 폭행 등 싸움이 많음”이라고 기록했다고 한다.⁷⁶⁾ “원주민”과 “신참자들”은 같은 장소에 동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난동’을 부린 ‘이질적인’ 그들과 자신들이 엮이는 것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의식적으로 철거 이주민들을 혐오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자신들도 이주민들과 같은 처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의식하고 이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⁷⁷⁾

74) 위의 책, 75면.

75) 신상웅, “광주대단지.” 『창조』 10월호, 1971, 118-133면.(김원,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도시봉기와 도시하층민」, 『기억과 전망』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197면에서 재인용)

76) 김태경, 『광주대단지 철거민 현황, 문제점 및 대책』 1970.5.16., 대통령비서실.(김원, 앞의 글, 201면에서 재인용)

77) 혐오는 동등한 권력과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갖는 우월감의 표출이 혐오이다. 주체는 자기가 혐오스런 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가진다. 아무튼 자기는 그와 같이 혐오스런 타자는 아닌 것이다.

(김종갑, 『혐오-감정의 정치학』, 은행나무, 2017, 13-14면.)

그런데 다음 순간 영순은 성남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은 거짓이며, 자신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가서 살게 될 날만을 꿈꾸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성남에 사는 것은 사실 “다 자기 못난 탓”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박이 느낀 것은 천길 높은 벼랑을 뿔뿔히 굴러떨어지는 듯한 감정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거센 배반감이기도 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 같은 게 원인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눈 깜짝할 새 아주 조포(粗暴)하기 짝이 없는 성욕으로 바뀌었다. 정영순이란 이름의 한 여자를 겨냥했다기보다 그것은 수없이 밟히고 밟혀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한 모진 목숨을 보았을 때 느끼는, 거기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주고 싶은 충동이나 매한가지 욕구였다.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도 참말 어처구니없고 느닷없는 변화였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그럴 수 없이 아주 절실한 기분이어서 당장 어찌지 않으면 속에서 꼭 탈이 날 것만 같았다.⁷⁸⁾

영순의 고백을 들은 박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성남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던 신기한 영순이 사실은 성남을 뜨고 싶어 하는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월감을 느끼고 구별 짓는 데 열중했던 상대가 사실 나와 같은 존재라면, 나 역시 언제나 영순과 같은 철거 이주민의 경제 수준으로, ‘이질적인 대중’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생각이 실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⁷⁹⁾ 따라서 한순간에 영순에게서 느껴지던 “건강한 동물성”은 “수없이 밟히고 밟혀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벌레의 그것처럼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박은 한순간에 영순의 정체성을 자신보다 한없이 열등한 벌레라고

78) 윤홍길, 앞의 책, 100면.

79) 내가 기꺼이 미워하는 적은 종종 가면을 쓴 내 자신인 것이다. 프로이트로부터 단서를 얻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에이리언들이 너무나도 두렵다면, 그 까닭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자신보다 더 우리와 닮았기 때문이다.
(Kearney, Richard(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135면.)

격하시키고는 “마지막 일격을 가해주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영순을 데리고 여관에 가기로 결심하고 함께 밖으로 나온다.

죄책감 같은 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사내들의 그와 같은 행동에 항용 따르게 마련인 소위 그 책임 문제에 관해서 어렴풋이 의식하면서 동시에 빠져날 구멍을 파고 있었다. 미스 정을 이끌고 거리로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그는 수없이 뇌고 있었다. 이건 결코 내 잘못이 아니다. 빈속에 과하게 마신 술이 유죄다, 그리고 예고 없이 내린 폭설 때문이다, 누군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건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⁸⁰⁾

그러면서 이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빈속에 과하게 마신 술과 예고 없이 내린 폭설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여성을 범하는 데 따르는 윤리적 갈등이 분명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은 자신을 타율적인 위치에 둬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기기만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영순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과 영순이 거리로 나왔을 때 마침 버스 운행이 재개되었다. 박에게 커피를 대접 받고 갑작스럽게 끌려나오는 바람에 영순은 빨리 박의 친절에 보답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 바람에 영순은 자리를 잡아놓겠다고 버스에 오르다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에게 휩쓸려 인사불성 상태가 되고 만다. 영순의 부상을 확인한 경찰관은 박에게 그녀와 아는 사이냐고 묻고, 박은 순간적으로 “실제적인 인간”이 되어 이를 부인한 채 성남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박 앞에 영순이 나타나 아무런 원망이나 비난의 빛도 없이 감사인사를 전한다. 영순과 인사한 후 박은 모든 것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 더 이상 꾀꾀이 서 있을 수가 없다고 느낀다. 박은 영순과 처음 만났을 때

80) 윤홍길, 앞의 책, 101면.

부터 그가 영순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그녀를 범하려하다가 막상 그녀가 부상당하자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 모른 채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박은 자신이 영순에게 느꼈던 우월감은 사실 자기만의 오해였으며, 오히려 그는 영순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빙청과 심홍」(『한국문학』, 1977)은 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집단 구성원의 책임 회피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공군 하사로 근무하는 ‘나’의 부대 훈련기 한 대가 격납고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우하사는 평소에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평판이 좋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사고 당시 사람들을 구하고 공구함들을 건진 영웅으로 포장됨으로써 진실은 허위로 둔갑한다. 병사들은 우하사가 영웅화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대세에 동조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대세에 동조하지 않고, 유일하게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인물은 ‘나’의 동기생인 신 하사이다. 우하사의 미담을 언론에 알리기 위한 기자 회견에 참석한 신 하사는 모두가 그를 칭찬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의 영웅적인 일화를 조작해내는 대신 그가 본 사실 그대로 사고 당일 우하사는 그저 불길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 하사는 고위 장교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고, 윗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다.

전우애에 불타는 고참 하사들의 서슬에 눌려서 그랬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고백이 된다. 강압에 못 이겨 비리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차라리 멀쩡히 살아 남은 자들의 축제에 한몫 끼여든 거라고 발명하는 편이 듣기에 한결 부드러울 것이었다. 신하사가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문에 기사화되어 나온 내용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해당란에 붙은 선까지 쳐가지고 우하사의 영웅적인 행동을 소개한 신문들이 내무반에 회람되었는데, 신하사가 진술한 내용은 사그리 무시된 채였다.⁸¹⁾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 병사들은 신 하사만이 유일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 하사가 옳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데, 이는 집단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집단에 반항하는 지나친 걱정과 위험한 신념을 지녔다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⁸²⁾ 결국 이들은 신 하사 한 명을 옳지 않은 인물이라고 단정 지음으로써 “비참한” 일에 가담하는 데 무책임하게 동의한다. 그 결과로 신 하사는 부대에 도는 이상한 소문의 당사자가 된다.

기자 회견이 있는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대대에 나돌기 시작했다. 우하사의 약혼녀와 신하사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회견 이후로 신하사가 간호 당번을 그만두게 된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기지병원 근처를 배회하는 신하사를 보았다는 사람이 생겼고 또 기지식당 뒷산에서 남녀가 밀회하는 장면을 먼발치로 목격했다는 출처 불명의 얘기도 오갔다. …(중략)… 소문이 나돌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던지는 사람들의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신하사는 스스로 근신하기로 결심한 듯 일과가 끝난 후에는 내무반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문은 확인되지 않은 채 흐리마리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⁸³⁾

신 하사에 관하여 집단에서 가공된 소문은 사실처럼 부각되면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객관적인 근거를 지니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대규모로 유통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가리킨다.⁸⁴⁾ 일단 소문이 생성되면 그 파급력은 개인의 독자적인 힘

81) 윤홍길, 「빙청과 심홍」,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39면.

82) Goffman, Erving(윤선길·정기현 역), 앞의 책, 17면.

83) 윤홍길, 「빙청과 심홍」,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39-140면.

84) 김종욱, 「구술문화와 저항담론으로서의 소문」, 『한국 현대소설의 서사형식과 미학』, 역락, 2005, 115면.

으로 감당할 수 없게 묘사된다. 소문은 집단의 의지와 충돌하는 개인에게 낙인을 찍음으로써 개인을 거부해야 할 인물로 치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 하사의 장례가 치러진 뒤 외출을 나가려는 ‘나’에게 신 하사는 한 통의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 편지는 우 하사의 약혼녀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신 하사의 신념을 담고 있었다.

이미 불행해질 만큼 불행해진 우하사를 두 번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하사는 전신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그 후 부대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우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하사가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살아 있는 사람들끼리 펼친 일장의 쇼에 불과합니다. 산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개처럼 질질 끌려다닌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하사는 우하사인 채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하사에서 더도 덜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법석을 떨어대고 존경을 강요하는 건 불행하게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오히려 그의 인간다운 죽음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우하사에게 자기를 되찾아주고 더도 덜도 아닌 우하사 본래의 자격으로 잠들 수 있도록 이 모든 추잡스런 놀음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아무쪼록 우하사의 영상을, 미스 양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무책임하게 장식되고 채색된 그 허상을 마음으로부터 말끔히 제거해버리십시오.“⁸⁵⁾

신 하사는 “우 하사는 우 하사인 채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우 하사를 죽이려 하였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기 전에 우 하사는 이미 죽어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 믿음은 바로 우 하사는 우 하사 “본래의 자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흐름을

85) 윤홍길, 앞의 책, 144-145면.

모르는 어수룩한 인물로 여겨지던 신 하사의 이와 같은 용기어린 고백이 소설 마지막에 부각됨으로써 집단의 의지와 소문도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작가의식이 드러난다.

3.2. 회귀하는 고통이 촉구하는 책임의식

윤홍길 소설에서 고통은 타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고통은 고통의 피해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몫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은 그것을 야기한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고통의 속성을 작가는 「무제」와 「꿈꾸는 자의 나성」을 통하여 보여준다.

폭력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합리화는 「무제」에서 드러난다. 「무제」(『한국문학』, 1978)는 분단 현실로 인한 가족 간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출판사의 직원인 ‘나’는 고모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의 고모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북에 가족을 남기고 홀로 간첩으로 남한에 넘어온 삼팔따라지이다. 그는 간첩활동도 변변히 못 해보고 며칠을 숨어 있다가 곧바로 자수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검거로 처리되었다. 이북에 남은 가족에게 닥칠 보복을 염려하여 검거로 처리해 달라고 그 자신이 당국에 탄원하였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고모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나, 남한에서 새로 얻은 가족에게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는 남한의 가족이 이북에 두고 온 가족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고 비교하는 발언을 줄곧 일삼는다. 또한 아내의 행실을 의심하고, 아들 승필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억지를 쓰며 지속적으로 학대한다.

살얼음 위를 걷듯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가정이 승필이를 낳고부터 거덜

나기 시작했다. 고모의 판에 박힌 푸념에 의할 것 같으면, 고모부가 승필이를 무지하게 학대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고모의 행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승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억지를 썼다.

이때부터 고모부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강연회 같은 데 연사로 참석하고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거두어 주는 성금을 받아 그는 수입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그 돈을 몽땅 주색잡기에 쓸어넣어 버렸다. 전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마냥 흥청거리며 다닌다는 소문이 우리집에까지 들렸다. 그렇게 허랑한 며칠을 보낸 끝에 집에만 돌아오면 마구 트집을 잡아 마누라를 쥐어패고 새끼를 동맹이친다는 것이었다. 고모 같은 여자 열둘을 보태야 이북에 있는 본처 하나 겨우 당할까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진짜 내 자식이 이렇게 멍청하고 못생길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⁸⁶⁾

결국 고모는 도망가고, 고모부는 범죄자가 된 승필에게 구타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러한 고모부가 본인의 여생을 ‘나’에게 의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와 아내는 고모부를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

고모부는 혈혈단신의 몸으로는 홀로 낯선 남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외로움 등의 이유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고모를 아내로 맞이하고 승필을 낳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모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폭언과 구타행위를 동원하여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 이는 이북에 두고 온 그리운 자식을 만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력감이 불러오는 분노를 고모부는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모를 비도덕적인 여자로, 승필을 “멍청하고 못생긴” 아이로 만들어버린다. 자신의 분노는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무력감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야기하는 것이라고 믿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가족을 감정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86) 윤홍길, 「무제」,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79면.

고모부의 폭력은 후에 승필이 고모부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자마자 고스란히 고모부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폭력이 야기한 영향력은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결국 돌아온다는 생각은 이후 윤홍길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편 ‘나’는 거래처인 인쇄공장에서 만난 괴짜 문선공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그는 완벽에 가까운 교정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특정 어휘와 대체해서 ‘무제(霧堤)’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집어넣는 괴벽을 가지고 있다. 그가 서명할 때 쓰는 받들 봉(奉)자에 ‘무제’를 합쳐서 부르는 ‘봉무제’란 이름은 이미 ‘나’가 일하는 출판사에서 유명해져있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봉무제 씨가 자신의 고모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퇴근 후 줄곧 그를 따라다니고 그의 행동을 관찰한다. 그러면서 ‘나’는 봉무제 씨가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월북한 삼팔따라지이며, 남한에서 홀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고모부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퇴근 후에도 봉무제 씨는 직장에서도처럼 여전히 괴짜다운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의 빵을 사주고 학생들이 먹는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는 것을 퇴근 후의 낙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봉무제 씨를 만나고 돌아온 얼마 후에 ‘나’는 갑작스럽게 봉무제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며, 고모부에 대한 근심으로 부쩍 마음이 쓰인다.⁸⁷⁾ 자신이 이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고모부마저 봉무제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될 거라고 예감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나’는 고모부를 갱생원에 보내려던 애초의 계획을 접고 고모부를 책임지기로 결심한다. 이는 여태껏 고모부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제처럼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복의 가족 때문에 받았던 고통을 스스로 가족이 됨으로써 함

87) 봉무제 씨가 퇴근 후에 보였던 괴짜다운 행동은 실향으로 인한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그의 죽음은 실향과 이산의 아픔이 산업화된 도시와 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금례, 「윤홍길 소설 연구-분단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5면.)

게 나누겠다는 책임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나’가 이러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고모부와 봉무제 씨를 같다고 여기고 고모부가 봉무제 씨처럼 외로이 죽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이다. 이는 ‘나’가 고모부와 봉무제 씨를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나’에게 있어 고모부와 봉무제 씨는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고모부는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폭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고모부의 모습은 ‘귀기(鬼氣)가 어린다’고 반복적으로 서술되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봉무제 씨가 고모부와 같은 이산가족임을 알기 전부터도 두 사람을 같다고 여긴 이유도 바로 봉무제 씨에게도 고모부와 같은 특유의 귀기 어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기 어림’, ‘괴짜스러움’은 소설의 끝까지 끝내 ‘나’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나’는 봉무제 씨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를 이해해보려 노력한 끝에 그가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봉무제 씨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고모부 역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모부와 봉무제 씨를 차이 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는 고모부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고모부는 매사에 남한의 가족과 이북 처자식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는 그가 이북에 두고 온 가족과의 기억에 여전히 얽매어있는 데 반하여 남한의 가족은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필요에 의해 마련한 가족에게 고모부는 애정을 주지 않았고, 이는 자식의 삶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고모부 가족의 상황을 작가는 “부모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이들이 벌을 받는 경우”⁸⁸⁾라고 진단한다.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이나 남한에서 새로 얻은 가족이나 똑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88) 위의 책, 91면.

대신, 차이를 두고 비교하면서 아내와 자식을 불행에 빠뜨린 고모부의 행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윤홍길은 보고 있는 것이다.

「꿈꾸는 자의 나성」(『문학사상』, 1982)은 회사 안의 인간관계 문제에 휩쓸리는 바람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까봐 고민하는 회사원 ‘나’의 이야기이다. ‘나’는 평소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내는 커피 값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며 인색하게 구는 손 대리에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손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동시에 ‘나’와 동향 출신으로 평소에 ‘나’를 아껴주던 선배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일이 벌어진다. 선배는 손 대리가 자신을 모함함으로써 좌천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는 의심을 품고는 이를 모두의 앞에서 밝히겠다고 복수를 다짐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돕게 한다. 송별회 때 ‘나’는 선배가 손 대리를 육탄 방어하는 동안 그가 시킨 대로 손 대리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꺼내 모두의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다. 그러나 수첩에는 “모월 모일 누가 뇌물을 받았다”든지 “누가 누구와 오입했다” 같은 내용이 적혀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평범하게 장을 본 기록만이 적혀있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손 대리는 오래 전부터 병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보살피며 직접 시장을 봐야만 했으며, 어려운 살림에도 겉으로는 의젓하게 보이려 하였던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손 대리는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니 결국 사표를 내버리고, 부장은 선배와 ‘나’가 저지른 짓은 “집단 폭행”이나 다름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 ‘나’는 손 대리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 하고 애써 그를 “못난 사람”이라고 깎아내린다.

자존심이란 것이 손 과장 혼자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래 살다 보니 별 끔찍하게 못난 사람도 다 겪는구만.”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왔다. 내 말에 내가 놀라 나는 얼른 꼭 선배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내가 저지른 일은 저지른 꼭 그만큼 내가 책임질 겁니다. 그 점은 아마 강

과장님도 마찬가지로요.”

마치 외눈박이 아니면 세눈박이쯤의 기형종을 구경하듯이 나를 한동안 이상한 눈초리로 쏘아보던 꺾 선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제까지 우리는 손 과장을 수전노, 아침꾼, 밀대, 비열한 등등으로 보았어. 그런데 오 늘은 못난 사람으로 몰아치게 되는군. 내일은 손 과장이란 인간을 어떤 눈으 로 바라보게 될지 궁금해지는걸.”⁸⁹⁾

‘나’의 태도를 지적하는 꺾 선배의 말은 ‘나’가 손 대리를 손 대리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그를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깎아내리려 함을 가리킨다.⁹⁰⁾ 결국 ‘나’는 자신을 “일종의 기형 인간”으로 취급한다고 여기는 회사 사람들에게 모욕을 느끼며 외톨이 신세를 자처하고 이는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이러쿵저러쿵 찢고까분”다고 생각한다. 그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느끼며 생존 경쟁에서의 위협을 느낀다. 하지만 ‘나’가 겪게 된 상황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그는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소망하는 자신이 손 대리를 포함하여 회사를 그만 둘 정도의 고통을 주었다는 현실에서 오는 인지부조화를 견디지 못 하고 손 대리를 지속적으로 폄하하였다.⁹¹⁾ 하지만 손 대리의 사정을 알게 된 회사 사람들은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몇몇은 ‘나’의 태도를 비판한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나’는 그 사람들마저 “학벌 관계”만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깎아내린다. 결국 인간관계 때문에 그가 겪게 된 고통은 끊임없는 자기

89) 위의 책, 223면.

90)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1면.

91) 페스팅거는 타인과 자신의 의견 사이의 부조화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인이 자신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게 만드는 법이 있음을 소개한다. 자신과 맞지 않는 타인의 의견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의견을 말하는 타인 자체를 어리석고 무례하며 사회성은 없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인지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는 줄어들 것이다.

(Festinger, Leon(김창대 역), 『인지부조화 이론』, 나남, 2016, 223면.)

정당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나’는 우연히도 다방에서 차 한 잔 안 시키고 전화로 로스앤젤레스 행 비행기 편의 예약 관계만 묻는 한 사내를 알게 된다. ‘나’는 손 대리에게 죄책감을 느낄수록 이 “LA행 사내”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에 집착한다. 결국 그 사내를 만난 ‘나’는 그로부터 동족을 죽이고 홀로 남은 채로 후회하는 열대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비단 수마트라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열대어에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느 다방의 수족관을 보든 공통적인 현상으로 짝을 잃고 혼자 사는 홀애비 물고기, 과부 물고기들이 혼한 겁니다. 동족을 죽이고 저 혼자 살아 남은 홀애비나 과부는 으레껏 처량해보이게 마련이지요. 어찌면 외롭고 고달픈 신세를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야 비로소 동족끼리 오순도순 양보해 가며 의중게 사는 건데 괜히 죽었다고 두고두고 후회할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목 아닙니까. 패배한 놈은 승리한 놈으로 하여금 죽는 그날까지 두고두고 후회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죽어서까지 복수하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그렇게 복수하는 재미를 노리고 어느 한쪽이 자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 대목이 이야기의 끝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가방을 집으면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작별 인사 대신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김달휘씨, 당신은 후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복수하지도 마시오.”⁹²⁾

사내가 말하는 동족을 죽이고 홀로 남은 열대어는 ‘나’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가리키는 은유이다. 이 말을 남기고 다방을 떠난 사내는 얼마 뒤 ‘나’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로스앤젤레스에 가려 하지 않는 대신 고향 서울을 찾겠다는 말을 한다. 이에 ‘나’ 역시 고향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그 고향 길의 초입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대리와의 화해를 결심하고 손 대리의 아내가 입원한 병실부터 찾기로 한다.

92)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꿈꾸는 자의 나성』, 문학과지성사, 240면.

소설 초반에 ‘나’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서울 생활에 대하여 선배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다.

“도대체 니가 바라는 서울 생활이란 게 어떤 건데?”

“그건 말입니다, 그건 저…….”

그걸 막상 말로써 표현하려니 혀가 잘 돌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다.

“이를테면 말이죠, 대처에 사는 사람들답게 도량이 넓어서 남의 약점도 감싸줄 줄 알고, 안목이 높아서 진실하고 허위를 정확히 가릴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존중할 줄도 알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뒤따르고…….”

“허허허, 그거 서울 얘기가 아니지. 넌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⁹³⁾

이를 통해 볼 때, 손 대리에 대하여 ‘나’가 보인 태도는 그가 가진 이상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사내가 로스앤젤레스에 가고자 했던 행적 역시 ‘나’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서울을 떠나고 싶은 막연한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사내가 고향 서울을 찾겠다는 것은 “천국”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가 밭을 딛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비록 서울은 동족을 죽이고 저 혼자 살아남고자 하는 열대어들이 가득 찬 수족관과 같은 세계지만, 그러한 관계를 인식하고 지양하고자 하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이 모일 때 서울은 고향이 될 수 있음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는 손 대리와 해묵은 관계를 끊고자 하는 생각이 “고향길의 초입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타인에게 고통을 초래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회귀하는 고통 또한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93)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꿈꾸는 자의 나성』, 문학과지성사, 210면.

4. 망각되지 않는 복수의 부당함

4.1. 부당한 복수가 야기하는 고통의 양상

1980년대 윤홍길의 작품 활동은 기존의 창작 경향과는 조금 다른 길을 보여준다. 우선 이전까지의 주력이었던 중·단편보다 장편 창작에 힘을 쏟으며, 또 작품의 시대적 배경도 80년대의 산업화사회를 조망하기보다 그에 앞선 일제 강점기나 6.25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홍길은 그가 제기하였던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0년대 작품에서 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소재가 바로 복수(復讐)이기 때문이다.

복수는 자신이 어떤 사람 혹은 집단으로부터 해를 입었다는 느낌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시도이다.⁹⁴⁾ 이러한 시도는 자신에게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나쁜 결과를 겪어야 마땅하다는 분노로부터 기원한다.⁹⁵⁾ 분노감정이 생기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타인을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⁹⁶⁾ 자칫 감정만을 앞세울 경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평소 분노를 느껴왔던 애꿎은 타인에게 복수가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윤홍길이 80년대 작품에서 주목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빚나간 복수’의 상황이다. 앞서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런데 윤홍길이 바라보는 복수 행위는 타인을 이해하

94) McCullough, Michael(김정희 역), 『복수의 심리학』, 살림, 2009, 48면.

95) Nussbaum, Martha(강동혁 역), 『분노와 용서』, 뿌리와이파리, 2018, 28면.

96) 김대균, 「분노 윤리학에 대한 연구」, 『倫理研究』 96(1), 한국윤리학회, 2014, 99-100면.

려는 노력 없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타인이 복수 받아 마땅한 자라고 판단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더하여 『완장』, 『산에는 눈 들에는 비』, 『낮』 등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복수의 특징은 한 가족을 대상으로 과거에 저질러진 개인의 복수 행위가 남은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가 불러온 영향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소되지 않고 남은 가족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며, 이는 결코 복수를 저지른 자가 의도하였던 상황이 아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수는 윤홍길의 초기 작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80년대 작품들이 복수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보인다. 이 장에서는 복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완장』과 『산에는 눈 들에는 비』를 중심으로 윤홍길이 복수가 야기한 고통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완장』(『현대문학』, 1982~1983)에 대한 종래의 평가는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권력에 대한 지향의식을 첨예하게 반영하였으며,⁹⁷⁾ 잘못된 권력의 행사가 빚어내는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⁹⁸⁾ 이는 작품의 주된 줄거리를 구성하는 임종술의 행적에 주목하여 작품을 독해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소재에 주목할 때, 종술의 행적을 서술하는 사이로 뉘그러처럼 지나가는 그의 모친 윤암댁의 심리 묘사를 포착할 수 있다.

완장이란 말이 툭 불거지는 순간에 받았던 충격에서 윤암댁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충격은 곧 똑같은 크기의 슬픔을 몰아왔다. 혀를 깨물어가며 기를 쓰고 눌러온, 그래서 어찌어찌 잊은 채로 넘어가는 듯하던 슬픔이었다. 그 슬픔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 말로 다시 생생하게 도지기 시

97) 김병익, 「사회의 단면과 현실풍자」, 『현대문학』 (3), 현대문학, 1983, 62-63면.

98) 이동하, 「비판과 해학」, 『현대문학』 (6), 현대문학, 1983, 180-181면.

작한 것이다. 지금 있는 식구들간에 겪는 풍파야 매일같이 치르다시피 하는 거니까 예사로 넘길 수도 있지만, 벌써 죽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그 풍파만큼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⁹⁹⁾

문제는 술집 작부 쪽이 아니었다. 작부에 얽힌 소문을 빌미로 하여 마을사람들이 한결같이 던져오는 돌팔매였다. 아직은 그저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호인가를 운암택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뒷전에 숨어 있는 엄청난 불행을 한 발짝 앞질러 오는 으스스한 조짐이었다.

다름아닌 그놈의 완장이란 물건이 화근이었다. 운암택의 문을 툭툭 두드리지는 불행은 바로 그 완장으로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¹⁰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심리상태는 불안이다. 동네의 “한량”이었던 종술이 저수지 감시원이라는 어엿한 직업을 얻고 승승장구함에도, 그녀는 피로 얼룩진 과거사가 남긴 트라우마로 인하여 종술이 걸친 완장이 끝내는 그녀의 가족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불안을 느끼며 고통 받는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때 『완장』은 과거 운암택의 남편이 저지른 복수 행위가 잊히지 않은 채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언하는 텍스트라고 새로이 독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종술은 모친 운암택과 딸인 정옥을 데리고 사는 이곡리의 유명한 건달이다(그의 아내는 종술이 과거 징역살이할 때 도망쳤다.). 그는 평생을 완장의 권위에 눌러 살아온 인물로,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자기도 언젠가 한 번 완장을 차보기를 선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널금 저수지의 감시원 역할이 맡겨진다. 공업단지 건설 붐을 틔타 벼락부자가 된 최 사장이 널금 저수지의

99) 윤홍길, 『완장』, 현대문학, 2011, 24면.

100) 위의 책, 105면.

사용권을 얻어 만든 양어장을 관리시키기 위하여 종술을 고용하게 된 것이다. 권위를 세워주는 완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종술에게 가져다준다. 감시원이 된 뒤로 그는 저수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세를 떠는 한편으로, 완장의 권위를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술집 작부 부월에게도 뺄치려 시도한다. 하지만 부월은 “완장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인물”¹⁰¹⁾로, 종술의 권위에 상처를 입힌다.

그것은 부월이년이 끼얹은 오물로 말미암아 똥친 막대기꼴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비닐 천의 표면이 뼈까번쩍 도금을 올린 쇠붙이처럼 느껴질 때까지 열심히 닦고 또 닦았다. 갈수록 격해지는 그의 손놀림에 놀라 호롱불이 자꾸만 숨을 곳을 찾으려 했다. 동작과 동작마다 그는 무슨 구호처럼 권위와 깃발 두 가지를 마음으로 외치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더럽혀진 자존심을 닦았다. 그는 자신의 망그러진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완장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라는 비장한 결심이었다.¹⁰²⁾

이를 통해 볼 때 종술에게 있어 자존심은 권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존심에 대한 종술의 견해는 서울살이에 실패하고 낙향하여 이곡리의 자유로운 일꾼으로 지내는 인배의 그것과 상반된다.

그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도 녀석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코뚜레를 해서 잡아끈다 해도 한사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녀석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빈둥거릴 때는 대개 제가 목표했던 월수입이 달성된 다음이었다. 일단 목표액만 손에 쥐었다 하면 더 이상 땀 흘려 수고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설령 품삯 대신 금지옥엽 고명딸을 주어 사위를 삼는다 해도 막무가내로 도리질만 하는 것이었다.

101) 위의 책, 51면.

102) 위의 책, 57면.

...(중략)...

너석은 누구의 간섭도 반응이 없이 제멋에 겨워서 아무렇게나 풀리는 대로 살아가는 괴짜 중의 괴짜였다.¹⁰³⁾

인배는 남들이 그를 괴짜로 보든 말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종술은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모든 요소들을 완장으로 여기고 욕심을 낸다.¹⁰⁴⁾ 반대로 이야기하면 종술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배는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배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이다.¹⁰⁵⁾

이러한 인배와 달리 종술의 모친 운암댁은 지나칠 정도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녀는 전쟁 중에 남편과 첫 아이를 잃었으며 종술을 데리고 멀리 타관 땅으로 도망쳐와 숨어 살고 있음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신체에 새기고 있는 인물이다. 운암댁의 남편 임씨는 일제 치하 때 양식을 공출로 뺏길 수 없다고 숨겨두었다가 누군가의 고자질로 발각되는 바람에 고문 끝에 오른손이 불구가 된 인물이다. 그는 헌병대의 앞잡이인 박가가 자신을 고자질했다고 여기고 그에게 복수심을 품는다. 그런데 사실 임씨와 박가는 과거 몹시 가뭄이 들었던 해에 물꼬싸움을 벌인 적이 있으며, 그때 임씨는 싸움 끝에 무력으로 박가를 제압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과거가 발미가 되어 앙심을 품은 박가는 스스로의 무력으로 꺾을 수 없는 임씨에게 일제 헌병대의 위세를 업어 복수를 시행하였다. 물꼬싸움이 말 그대로 두 사람 간의 오랜 악연의 ‘물꼬’가 된 것이다.

103) 위의 책, 77면.

104)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거론되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조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중권 외, 『자존심』, 한겨레, 2007, 22면.)

105) 위의 책, 33면.

그 뒤 6.25전쟁이 발발하고 인공 치하에서 임씨는 자위대가 되어 완장을 찬다. 그는 과거 헌병에게 양식을 숨기고 고문을 당한 일을 독립운동이라 자부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완장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성격이 점점 포악하게 변해간다. 심지어 임씨는 잊은 채로 지내온 원한을 떠올리며 박가에 대한 복수를 꾀한 끝에 변성명까지 하고 숨어 살던 박가를 고향으로 끌고 와서 그를 살해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씨는 마치 누구에게라도 자신이 불구가 된 탓을 돌리려는 듯이 “한세상 요란하게”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다가 수복 직전에 산으로 피신해 들어간다. 운암댁은 남편의 생사 확인도 못 한 채 박가네의 보복을 피하여 알아보는 이가 없는 객지로만 떠돌아야 했다. 임씨에게 당할 만큼 당해본 이웃 사람들이 아무도 박가네의 보복으로부터 운암댁 모자를 구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생살이로 연명하는 과정에서 첫째 아들을 잃은 끝에 운암댁은 종술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곡리에 정착하였지만, 끝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라도 자신의 집안이 복수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물꼬싸움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 동안 물리고 물린 임씨와 박가 사이의 복수의 연쇄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은 오직 서로를 향한 복수의 감정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데만 충실하였다. 또한 임씨는 자신의 오른손을 잃게 되는 데 계기를 제공한 박가 외에, 그의 불우한 처지와 관련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온갖 패악질을 저질렀다. 이는 불구가 된 오른손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진 임씨가 자격지심 격으로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⁰⁶⁾ 김찬호에 의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깔아뭉개면서 자신이 높이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¹⁰⁷⁾ 그가 헌병에게 양식을 숨기고 고문을 당한 일을 독립운동이라 자부한 것 역시도 어떻게든 그의 존재가

106)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67면.

107) 위의 책, 77면.

치를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의 회복을 위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정당성은 임씨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임씨의 분노가 야기한 피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그의 가족에게 돌아왔다. 운암댁이 평생을 불안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술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임씨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홍길은 종술의 행적 역시 그의 부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함으로써 전쟁이 끝난 지 한 세대가 지나 공업단지 건설 붐이 일어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복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머지 작품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작가의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마을 차원에서 저수지의 물을 빼기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저수지의 감시원 역할은 필요치 않게 된다. 그러자 종술은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작업에 대항하려 하고, 급기야는 운암댁도 몰라볼 정도로 미쳐 발광하기에 이른다. 물을 빼려고 시도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적인 무력행사를 통한 해코지를 하겠다고 버리며 마을의 문젯거리로 부상한 것이다. 종술은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을 언제나 막아서온 완장들에게 놀리며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고 격하되는 모욕감을 느껴온 인물이다.¹⁰⁸⁾ 그랬던 그가 완장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 한 몸처럼 여겨지는 완장이 언제까지나 그만의 것일 수는 없으며, 완장이 없어지는 날 그가 느끼는 모욕감은 분노로 바뀌고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복수를 행할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과거 그의 남편이 당한 것과 똑같은 불행이 반복될 것임을 직감한 운암댁은 부월에게 아들 종술과 손녀인 정옥을 데리고 마을을 떠

108) 김찬호, 앞의 책, 61면.

나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여생을 혼자 외로이 늙을지언정 남은 가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운암택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운암택의 눈자위가 질척질척 젖는다 싶더니만 그제 눈물 방울이 뚝 떨어졌다. 사태가 여간만 심각하지 않음을 부월이한테 다짜고짜 일깨워주는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엄니!”

외마디 소리와 함께 부월이는 운암택의 손을 덥석 거머잡았다. 조금도 서럽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부월이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복받쳐올라오는 울음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¹⁰⁹⁾

외롭고도 고단한 사내, 죽는 줄도 모르고 시나브로 죽어가는 한 불행한 사내를 구원할 사람은 오로지 세상에서 저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명감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¹¹⁰⁾

부월은 운암택을 처음 대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을 보는 것만으로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책임감을 이해한다.¹¹¹⁾ 그 책임감은 그대로 부월의 “놀라운 사명감”으로 나타나고, 이는 종술의 욕망마저 잠재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월은 물을 빼지 못하도록 저수지에서 뗏목을 타면서 시위하고 있는 종술을 찾아가 그를 설득한다.

“자기한테는 완장이 그렇게나 소중한 것인가?”

남자는 잠자코 앉아 있기만 했다.

109) 윤홍길, 『완장』, 현대문학, 2011, 309면.

110) 윤홍길, 『완장』, 현대문학, 2011, 311면.

111) 짐멜은 사람은 그/그녀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그녀의 얼굴로 인해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Simmel, Georg(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60-161면.)

“세 식구 목숨허고도 안 바꿀 만찮 소중한 것이 그 완장이여?”

“너는 임종술이가 아니여. 너는 김부월이여. 차고댕겨본 적도 없으니께 부월이는 완장을 몰라. 요 완장 뒤에는 법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법이.”

완장의 매끄러운 비닐 표면을 손톱 끝으로 툭툭 튕기는 소리가 났다. 부월이는 핫김에 노를 들어 뗏목 바닥을 퍽 갈겼다.

“나도 알어! 눈에 보이는 완장은 기중 벨볼일없는 하빠리들이나 차는 게여! 진짜배기 완장은 눈에 보이지도 았어! 자기는 지서장이나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꼴 봤어? 완장 차고댕기는 사장님이나 교수님 봤어? 권력 중에서도 아무 실속없이 남들이 흘린 뿌시레기나 좇어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여! 진수성찬은 말짱 다 뒷전에 숨어서 눈에 보이지도 았는 완장들 차지란 말여! 우리 둘이서 힘만 합친다면 자기는 앞으로 진짜배기 완장도 찰 수가 있단 말여!”¹¹²⁾

이러한 부월의 설득 끝에 완장은 저수지에 버려지고 종술은 부월과 함께 그의 딸을 데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마을을 떠난다. 운암댁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설득이 성공한 덕분에 종술은 그의 부친과 달리 살인자가 될 뻔한 신세를 모면하게 되었고, 이로써 소설은 다행스러운 결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사람이 떠나고 여전히 이 곡리에 남아있는 운암댁이 홀로 견뎌내야 할 슬픔을 소설은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운암댁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종술과 정옥 두 사람뿐이었다. 이미 남편과 첫 아들을 잃은 바 있는 그녀는 남은 가족마저 잃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옥을 향한 운암댁의 감정이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랑을 넘어 집착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나타난다.

손녀의 입에서 이모란 말이 튀어나왔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녀를 확

112) 윤홍길, 앞의 책, 313-314면.

떠다밀고 말았다. 손끝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섬뜩한 기분, 마치 뱀이라도 만진 듯이 좌악 끼치는 소름을 어쩔 수가 없었다.

...(중략)...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운암택이 맨 먼저 손댄 것은 더러운 빨랫감을 물 속에 구겨박고 거기에 합성세제를 듬뿍 치는 것과도 같은 심정으로 손녀가 바깥에서 문혀 들어온 불결한 흔적들을 원상대로 말끔히 지워놓는 작업이었다.¹¹³⁾

운암택은 싫다고 양탈하는 철부지 손녀를 욕박질러 보라색 새옷을 벗기고 멀쩡한 머리도 싹둑싹둑 가위질을 해서 더떨머리로 깡똥하게 잘라버렸다. 오물 덩어리를 대하듯이 손녀를 함부로 다루었다. 평상시의 할머니답지 않게 마구 우격다짐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암택이 느끼는 배신감은 여간해서 가셔지지 않았다.

참말로 그랬다. 그것은 배신 행위였다. 도망친 어미를 대신하여 아침마다 손녀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겨주고 끼니나 입성을 정성껏 챙겨주는 것으로 낙을 삼아온 운암택이었다.

그런데 손녀는 이제 자기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퍼뜩 드는 것이었다. 아무리 어린 소견이기로 자기 아닌 다른 여자의 손길을, 더구나 저를 버리고 달아난 부정한 계집을 아직도 제 어미랍시고 웬 근본도 모르는 여편네를 그 어미의 불이로 열씨구나 하고 받아들인 손녀의 소행머리는 생각할수록 그저 괘씸하기만 했다.¹¹⁴⁾

손녀인 정옥이 자신을 이모라 칭하며 접근한 부월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운암택은 섬뜩함과 함께 정옥을 마치 “불결한 오물 덩어리”라 느끼고 정옥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긴다.¹¹⁵⁾ 그녀가 이 정도로 가족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만큼 평소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엄청났기

113) 윤흥길, 앞의 책, 260면.

114) 위의 책, 261면.

115) 이는 「황혼의 집」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딸 정옥이가 자신의 집을 빠져나가는 것만은 무섭게 막아 세우던 노파를 연상케 한다.

때문이라고 보인다. 만약 남은 가족마저 잃게 된다면 그녀에게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며,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평소 심정을 짐작해볼 때, 비록 종술의 목숨을 구해냈지만 운암택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잃은 채 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고통을 짐작하면서도 그녀가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복수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운암택 모녀가 박가네의 보복을 피하여 이곡리까지 도망쳐 와야 했던 것처럼, 복수의 굴레는 어느 한쪽이 자의적으로 복수 행위를 중단하거나, 혹은 다른 쪽의 영향력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한은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윤홍길은 보고 있다. 이곡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이 저질렀던 과거의 기억에 몸부림치는 운암택은 여전히 그의 남편이 야기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술과 정옥을 떠나보낸 것은 운암택이 엄연히 자신을 희생한 결과이며, 복수의 연쇄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다. 『완장』을 통하여 복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의도치 않게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윤홍길은 복수의 연쇄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작품인 『산에는 눈 들에는 비』를 통하여 고민하고 있다.

4.2. 용서를 통한 복수의 굴레 벗기

『산에는 눈 들에는 비』(『새농민』, 1985~1986, 원제: 『언덕 위의 백합』)는 『완장』의 무대였던 이곡리의 널금 저수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완장』의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책임을 떠맡으려 하는 아들 우승기의 이야기로,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인물인 인배가 승기의 친구이자 그의 관

찰자로서 『완장』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등장한다.

널금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달마산에 별장이 들어서고 서울의 부잣집 우 회장의 아들인 승기가 그 별장에 거주하게 된다. 우 회장은 자신의 고향에서 “부끄러운, 어쩌면 더럽기조차 한 내력”이 있는 인물로, 그런 그가 지은 별장은 단번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질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승기가 반쯤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직접 승기를 만나본 인배는 이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승기는 자신의 고향이 지구가 아닌 유카틴 성이며, 자신이 지구에 온 이유는 우 회장으로 하여금 과거에 저지른 죄의 용서를 빌게 함으로써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인배는 처음에는 승기의 괴상한 차림과 광기로 인하여 그에게 거부감을 가지지만, 농사일을 가르쳐달라고 먼저 다가오며 싹싹하게 대하는 태도에 금방 친해진다.

승기의 외양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 저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합니다.”

우승기가 서리맞은 고명호박처럼 풀기 잃은 모습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인배는 그때 계집애를 닮은 그의 부드럽고 하얀 낮꽃 위로 진땀처럼 선명하게 번지는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짙한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상한 힘을 지닌 얼굴이었다.¹¹⁶⁾

희미한 웃음이 그의 얼굴 전체로 알게 모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섬뜩하리만큼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중천에 뜬 하현달을 보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뒤로 젖혔다.¹¹⁷⁾

그는 그저 묵묵히 넓은 거실바닥을 오락가락하면서 마치 가로와 세로의 정

116) 윤홍길, 『산에는 눈 들에는 비』, 세계사, 1993, 76면.

117) 위의 책, 102-103면.

확한 길이를 재려는 듯이 발걸음을 매우 신중하게 옮기고 있었다. 어찌 보면 슬픔에 잠긴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자기 혼자만의 흥에 취해 있는 것도 같은 묘한 표정이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용모는 외로워보일수록 더욱 더 수려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¹¹⁸⁾

승기에게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유일한 친구인 인배이다. 분명 친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승기의 외로움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고통은 그 자체가 외로울 뿐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마음의 고통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홀로 있고 싶은 것이다.¹¹⁹⁾ 승기의 고통은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인배와 같은 상식적 사고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그래서 더더욱 외로운 것이다.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다. 승기가 아버지의 부정을 처음 알게 되었던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이때 젊은 남자의 손에서 뭔가 번쩍했다. 퍼렇게 날이 선 비수였다. 그는 비수를 겨누어 차 안의 아버지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곧바로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배에 폭 꽂아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그는 무릎과 허리를 접으면서 앞으로 폭 고꾸라졌다. 사방에서 비명과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습하는 현기증 때문에 승기는 두 눈을 꼭 감아버렸다. 그는 문득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다.

“지옥이 정말 따로 없더군요. 우 회장의 잔혹한 면모를 최초로 목격하게 된 그 자리가 말하자면 지옥의 초입이고, 우 회장이란 비인간을 호주로 모시고 사는 집안 자체가 바로 지옥의 한복판이었지요. 그 무렵부터 우 회장이란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뒤를 캐기 시작했던 겁니다.”

118) 위의 책, 230면.

119) 손봉호, 앞의 책, 60면.

당시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 우승기는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하면서 한바탕 심하게 진저리를 켰다.¹²⁰⁾

고등학생 때 승기는 우 회장의 사채업에 말려서 전 재산을 잃은 젊은 남자가 자진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로 우 회장의 아들로서의 삶을 “지옥”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젊은 남자의 기억은 이후 유령처럼 승기에게 떠오르며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부당함을 알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괴로움에 사로잡힌 승기는 중학생 때까지 잘하던 공부도 못 하게 되고, 결국 정신 이상까지 보이게 된다.

우 회장이 저지른 죄의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하여 승기는 인배와 함께 마을의 교장선생과 만나고 교장선생에게서 우 회장에 관한 구체적인 과거를 듣게 된다. 교장선생의 김씨 집안은 참봉인 할아버지가 일본으로부터 땅을 지켜낸 천석꾼 집안이며, 우 회장은 김씨 집안 소작인의 아들이라 가난함에도 하인 노릇을 하며 교장선생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다 우 회장의 모친이 도둑으로 몰려 망신을 당하고 부친마저 그 일 때문에 못매를 맞아 골병이 들어 폐인이 돼버린 사건을 겪고 우 회장은 참봉댁 행랑채에 불을 지른 뒤 고향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우 회장은 일본인 지주인 하야시를 앞세우고 자신은 그의 마름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 그는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일제의 수탈이 자행되던 당시에 갖가지 속임수와 폭력을 동원하여 일본 사람보다 더욱 가혹하게 농토를 강탈하고 이웃이었던 그들을 소작인이나 머슴으로 강등시켰다. 특히 우 회장은 자신의 비천했던 어린 시절을 잘 알거나 옛날에 자기 집안에 가혹하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다. 누구보다도 특별히 증오하고 못살게 군 사람이 바로 교장선생과 그 집안으로, 우 회장은 교장선생의 약혼녀를 곳집에서 겁탈하였고 결국 그녀는 자살하게 되었다.

120) 윤홍길, 앞의 책, 164면.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우 회장이 여생을 보내고자 고향으로 돌아오려 한다. 이러한 과거사를 알고 있는 김씨 집안 젊은이들은 비록 그 당시의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승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요것 한 가지만은 자네도 분명히 알어두소. 우리 김씨 집안하고 별장집 사이는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딴기 어물쩍 그냥 넘어갈 그런 관계가 아니네. 아무 때고 꼭 피를 봐야만 묵은 빛이 청산되는 그런 관계라네. 어느 놈이고 그쪽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는 큰코다칠 날이 있을 티니께 인배 자네도 그런 줄만 아소.”

...(중략)...

김씨네 젊은이들 사이에 흐르는 도도한 적대감의 물결을 보고 인배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¹²¹⁾

더구나 정섭과 순섭 형제는 당시에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였다. 그들은 다만 집안 어른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따름이었다. 자기네가 직접 겪지도 않은 선대의 역사를 답삭 떠안아 오히려 당사자인 교장선생보다 더 흥분하던 젊은 세대의 모습을 새삼 눈앞에 떠올리면서 인배는 재물과 함께 원한도 후손들에게 어김없이 상속되는 역사의 법칙에 두려움마저 느꼈다.¹²²⁾

그들은 승기가 기르던 개를 죽이고 별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위협을 하는가 하면, 인배가 우 회장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고 오해하고 그에게 린치를 가한다. 이렇게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승기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복수의 사슬을 끊고자 시도한다.

승기는 우 회장의 과거를 모두 파악한 뒤 서울로 올라가 그에게 자존

121) 위의 책, 176-177면.

122) 위의 책, 178면.

심을 내려놓고 교장 선생과 그 집안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설득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마을의 오랜 숙원인 도로 포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심을 사고 고향으로 귀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승기는 김씨 집안에서 우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자기가 희생해야 할 일임을 내비친다. 그리고 인배의 결혼식 날 결국 우 회장이 아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에 내려오며 결혼식은 난장판이 된다. 우 회장을 내보내려고 애쓰던 승기는 갑자기 히죽히죽 웃으면서 외계인 소리를 내는 등 완전히 실성한 기미를 보인다. 교장이 우 회장과 대면하며 소란을 잠재우는 사이에 승기는 행방불명돼버리고, 인배는 사라진 승기를 걱정한다.

승기가 없어진 사흘 동안, 인배는 승기의 시체를 찾겠다고 계속해서 저수지를 뒤킨다. 그 결과 저수지에서 승기의 장화가 발견되어 나오고, 승기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던 우 회장은 아들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저수지 물을 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농민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데 필수적인 저수지 물을 함부로 뺄 수는 없다며 회장의 권위와 부딪힌다. 흥분한 우 회장 앞에 교장이 나타나고, 우 회장이 교장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하자 결국 교장은 우 회장을 용서하는 뜻으로 물을 빼라고 결정한다. 그 순간 승기를 찾아냈다는 연락이 오며 다행히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된다. 승기는 인근의 경찰서에서 잡아두고 있었다.

“죽지도 앓을 사람이 가죽장화는 왜 무단시 벗어서 물밑에다 가라앉혔을꼬.”

아마도 밤새껏 품어온 의문인 듯했다. 혜순은 마치 별장집 도련님의 엉뚱한 행동을 비난하는 투로 입을 열었다.

“자기를 죽이는 대신 장화를 물에 빠져서 죽이는 것으로 되린님은 자기가 죽었다고 믿고 싶었겠지.”

인배는 간밤에 별장집 도련님의 가죽장화를 건져올렸던 바로 그 자리로 걸

어가면서 투명스럽게 받아넘겼다.

“장화도 안 신고 맨발로 으떻게 유카틴인지 뭔지 허는 그 별나라까장 갈라고 그런 짓을 했디야?”

“이 바보야, 고것이 바로 되린님이 유카틴으로 돌아가는 방법인지 여태까장 눈치도 못 챘어?”

별로 피곤하지는 않았다. 며칠에 걸쳐 쉴 틈도 없이 나부대면서 힘에 겨운 자맥질을 한 데다가 간밤에는 거의 한숨도 못 잔 형편이었으나 인배는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었다. 별장집 도련님은 이제 정신병원에 수용될 것이었다. 승기의 도져버린 정신분열증이 결과적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교장선생과 우 회장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다행스런 느낌마저 드는 것이었다.¹²³⁾

인배는 승기의 도져버린 정신분열증이 결과적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교장과 우 회장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느낀다.

이 소설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복수의 시행과 그로 인한 결과이다. 복수를 시행하는 가장 주된 인물은 단연 우 회장이다. 윤홍길 소설에서 우 회장만큼 지독하고 철저하게 복수 의지를 가지고 이를 행한 인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대로 그는 교장 선생에게 뿌리깊은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다. 어릴 때 그의 모친이 창피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부친이 나섰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바로 교장 선생 집안의 마름과 머슴들이었다. 그럼에도 어린 우 회장은 분노의 화살을 마름과 머슴들이 아니라 교장 선생 집안에 돌린다.

놀랍게도 우 주사는 초주검이 되어 업혀가는 제 아버지를 다른 구경꾼들과 똑같은 싸늘한 눈초리로 그저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하고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 튀는 걸 보고 교장선생은

123) 위의 책, 314-315면.

소름이 쭉 끼쳤다. 교장선생을 당장에 녹여 없앨 듯한 기세로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활활 타는 시선을 그는 뜨겁게 내뿜고 있었다. 늘 도련님으로 모시던 교장선생을 그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노려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중략)...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는 홀연히 마을을 떠나버렸다. 마침 누추한 차림에 달랑 피나리봇짐 하나 둘러메고 길을 나서는 그를 본 사람이 마을에 있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소년티도 다 벗지 못한 그가 제법 어기찬 소리로, 돈 벌어서 원수 갚으려고 만주로 떠난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도 교장선생은 그가 왜 마름네 집이 아니고 참봉댁의 행랑채에다 불을 지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¹²⁴⁾

우 회장은 교장 선생의 하인 노릇을 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교장 선생보다 “영리한 머리를 타고났음에도” 조심스레 처신하기 위하여 일부러 교장 선생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가정 형편 때문에 소학교만 마치고 더 이상 상급 학교에는 진학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린 우 회장은 능력에 상관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장 선생에게 열등감을 느껴야 함에 한이 맺혔고, 평생을 온갖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데 보냈다. 어찌 보면 우 회장은 어린 시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교장 선생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복수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수의 결과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생의 노력 끝에 그는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재산을 모았으나 정작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아들 승기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 게다가 『완장』의 종술 부친과 그의 가족들의 경우처럼, 우 회장의 복수는 그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승기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이 고통은 승기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끝내는 그를 완전히 실성하게 만들었다. 여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내게 될 승기는 사실상 살아도 산 것이 아

124) 위의 책, 123-124면.

니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 회장이 평생에 걸쳐 거듭한 복수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말을 초래하였다. 이를 통하여 윤홍길은 복수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 복수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치며 중국에는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임을 작가는 『완장』에 이어 『산에는 눈 들에는 비』를 통해서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있다.

윤홍길이 복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복수의 허무함 때문만은 아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갈등 양상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사죄하겠다는 승기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언하는 교장 선생 간의 갈등이다.

“우 회장님을 홍보고 그분이 저지른 죄악을 백일하에 폭로하자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분이 구원받는 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인자 와서 새똥빠지게 그 사람을 단죄하고 징치할 생각은 없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도와서 구원받게코롬 내가 나서서 일조가 될 생각도 없다.”

“아닙니다. 옛날에 남의 집에 불을 지르다가 붙잡힌 소년을 위해서 대신 어른한테 용서를 빌어주셨던 것처럼 교장선생님은 늙고 병든 우 회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떠맡으셔야 합니다.”

별장집 도련님은 거의 억지에 가까운 고집으로 기를 쓰고 교장선생한테 매달렸다.¹²⁵⁾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없어지기 전엔 우 회장하고 교장선생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벌건 대낮에 심청이마냥 풍당 빠져죽기로 작심을 했던 말ियो?”

“죽는 것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엄연히 사정이 다릅니다.”

125) 위의 책, 125-126면.

...(중략)...

“별나라로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춘부장 어르신하고 교장선상님 사이를 화해시킨단 말씀이요?”

“우 회장이 지은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빌겠다는 뜻입니다.”¹²⁶⁾

“우 주사 아들을 만나거든 인배 니가 친구로서 단단히 충고허거라.”

교장실을 막 빠져나가려는 인배의 등뒤에서 교장선생이 음울한 가락으로, 그러나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애비가 지은 죄를 그 자식이 대신 질 수는 없는 법이다. 또 애비가 지은 죄 땀시 그 자식이 고민하는 것도 현명한 처신은 아니다. 고된 일로 날 만날 생각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알아듣게 니가 잘 타일르거라.”¹²⁷⁾

승기는 지은 죄가 없음에도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짐으로써 아버지를 구원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는 죄를 짓지 않은 후손 세대를 죄인으로 만드는 복수의 특징으로, 교장 선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장 선생은 그의 집안 후손들이 승기네 별장 유리창을 깨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적대감을 드러낼 때마다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타이른다. 만약 교장 선생 본인이 우 회장에게 복수를 다짐하였다면 집안 후손들이 앞장서서 승기의 목숨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교장 선생은 이러한 결과를 염려하였고, 후손 세대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죄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복수를 시행하지 않는다. 교장 선생이 우 회장에게 복수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결코 우 회장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우 주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 허고는 내 소관사가 아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용서하는 일은 원래 한도가 있는 법이다. 용서할 죄 따로 있고

126) 위의 책, 153면.

127) 위의 책, 200면.

용서 못할 죄 따로 있느니라.”¹²⁸⁾

용서에는 한도가 있는 법이라고 교장 선생은 선을 긋고 있다. 그가 쉽사리 용서할 수 없는 우 회장에게 복수할 마음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후손들을 승기와 같은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교장 선생이기에 소설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교장 선생의 용서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교장 선생이 우 회장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우 회장의 심경 변화를 분명하게 읽어내었기 때문이다. 우 회장은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¹²⁹⁾ 된다는 믿음을 평생에 걸쳐 가졌던 인물로, 과거에 그가 저지른 죄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만으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리게 되는 아들의 죽음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다. 비로소 우 회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교장 또한 그런 우 회장을 동정하며 사죄를 받아들인다. 교장 선생과 우 회장의 극적인 화해는 승기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승기는 죄를 저지른 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이것이 결국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¹³⁰⁾ 소설 전체에 걸친 승기의 노력과 교장의 태도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후손의 책임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복수가 멈추고 끝내는 용서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128) 위의 책, 198면.

129) 위의 책, 307면.

130) 홍원표, 「정치적 책임과 용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해」, 『21세기정치학회보』 18(2), 21세기정치학회, 2008, 16면.

5. 결론

본고는 윤홍길 소설 전반을 아우르는 중심소재를 고통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물들을 문제 삼는다. 구체적으로 윤홍길은 타인에게 향하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자신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식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 본고는 윤홍길 소설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무지의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가가 고민해온 궤적을 작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보편 무지의 양상을 살폈다. 이에 앞서 등단작 「회색 면류관의 계절」을 통해 고통에 대한 윤홍길의 기본적인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윤홍길은 고통을 받지 않는 인물은 없으며,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편 무지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무력감이 나타나는 양상을 「황혼의 집」, 「건넌목 이야기」, 「장마」, 「양」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야기한 인물이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양상들에 주목하였다.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윤홍길은 인물들의 자기 정당화와 부합하지 않는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3장 1절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2, 「엄동」, 「빙청과 심홍」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윤홍길이 바

라보는 고통의 속성은 그것을 야기한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보았다. 이는 「무제」, 「꿈꾸는 자의 나성」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장에서는 윤홍길이 초기 작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복수라는 문제로 귀결됨을 살펴보았다. 4장 1절에서는 『완장』의 분석을 통하여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한 번 발생한 복수의 영향력이 후손 세대에게 미치는 피해의 양상을 살폈다. 4장 2절에서는 복수의 굴레를 멈춤으로써 복수가 야기하는 고통이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윤홍길이 고심한 흔적을 『산에는 눈 들에는 비』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작가는 우선 평생을 복수에 매달린 인물이 겪는 불행을 통하여 복수의 허무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또한 복수는 자신의 후손 세대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또한 복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참 고 문 헌

1. 기초자료

- 윤홍길, 『황혼의 집』, 문학과지성사, 1976. (3판: 2007)
- _____,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1977. (3판: 1997)
- _____, 『묵시의 바다』, 문학과지성사, 1978.
- _____,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비평사, 1979.
- _____, 『문학동네 그 옆동네』, 전예원, 1983.
- _____, 『완장』, 현대문학, 1983. (4판: 2012)
- _____, 『꿈꾸는 자의 나성』, 문학과지성사, 1987.
- _____, 『순은의 뉘』, 이조출판사, 1987.
- _____, 『산에는 눈 들에는 비』, 세계사, 1993.
- _____, 『낫』, 문학동네, 1995.

2. 단행본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97.
-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윤희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정해창 외, 『악이란 무엇인가』, 창, 1992.
- 진중권 외, 『자존심』, 한겨레, 2007.
- Aristotles(강상진 외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길, 2011.

Aronson, Elliot(박재호 역), 『인간, 사회적 동물』, 탐구당, 2014.

Bauman, Zygmunt·Donskis, Leonidas(최호영 역), 『도덕적 불감증, 책 읽는수요일, 2015.』

Brown, Rupert(박희태·류승아 역), 『편견사회』, 학지사, 2017.

Festinger, Leon(김창대 역), 『인지부조화 이론』, 나남, 2016.

Fromm, Erich(장혜경 역),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나무생각, 2016.

Kearney, Richard(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McCullough, Michael(김정희 역), 『복수의 심리학』, 살림, 2009.

Nussbaum, Martha(강동혁 역), 『분노와 용서』, 뿌리와이파리, 2018.

Rousseau, Jean-Jacques(주경복·고봉만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3. 학위논문

곽윤경, 「윤홍길 장편소설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박민혜, 「윤홍길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정은,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악의 체험과 죽음의 체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종훈, 「윤홍길 소설 갈등 연구-「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장마」, 『묵시의 바다』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박하나, 「1970년대 성장서사에 나타난 전쟁기억의 재현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백지영, 「윤홍길의 「장마」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승희, 「윤홍길의 분단소설 연구-체험의 서사에서 모색의 서사로」,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신아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폭력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양선미, 「서기원 소설에 나타나는 열등의식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금례, 「윤홍길 소설 연구-분단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주석, 「윤홍길 장편소설 연구-개인과 집단의 갈등과 구원 양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해정, 「윤홍길 소설의 윤리적 주체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희숙,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폭력 양상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 학술지논문

- 강진구, 「광주대단지 사건과 문학적 재현」,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 강헌국, 「소망과 현실」,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 고재식, 「체제의 폭력과 반체제의 폭력」, 『철학과 현실』 6, 철학문화연구소, 1990.
- 곽윤경, 「모성 탐구-윤홍길의 장편 『에미』와 『순은의 뉘』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94, 한국언어문학회, 2015.

- 김귀룡, 「소크라테스와 데리다-무지를 자각한 삶과 해체된 삶」,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2015.
- 김교선, 「윤홍길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4), 현대문학, 1982.
- 김근호, 「산업화시대 한국소설의 폭력 표상과 이웃 윤리」,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김대균, 「분노 윤리학에 대한 연구」, 『이론연구』 96, 한국윤리학회, 2014.
- 김미란,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 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 소시민의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김민옥, 「윤홍길의 「매우 잘 생긴 우산 하나」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 김병덕, 「불모의 현실과 여성적 화해의 세계-윤홍길론」,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지성』, 문학과지성사, 1979.봄.
- 김승희, 「토속의 핏줄에서 찾는 화음의 세계」,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79.8.
- 김원,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도시봉기와 도시하층민」, 『기억과 전망』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 김종욱, 「서기원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자기 모멸과 고백의 욕망」,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01.
- 김현진, 「시선을 중심으로 본 주체와 욕망의 메커니즘」,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6.
- 김형중, 「윤홍길 초기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에 대하여-「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 나병철,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내부시점의 시각성과 타자 윤리의 율림」, 『청람어문교육』 6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 노상우·안오순, 「‘타인성 철학’의 현대교육학적 함의」, 『교육철학』 42, 한국교육철학학회, 2008.
- 노진한, 「장마論-한국전쟁과 그 해결의 방법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5.
- 문성원, 「새로움과 용서(1)-자크 데리다의 유령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55, 새한철학회, 2009.
- 박수현, 「폭력의 기원과 공권력의 구조」, 『現代文學理論研究』 5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 박숙자, 「1970년대 타인의 윤리학과 ‘공감’의 서사」, 『대중서사연구』 17(1), 대중서사학회, 2011.
- 백로라, 「윤홍길의 작품세계」, 『송실어문』 13, 송실어문학회, 1997.
- 서보호·안아름, 「윤홍길 소설에서 나타난 마조히즘의 양상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7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 서은선, 「윤홍길 소설 《에미》의 모성신화 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학회, 2006.
- 손병석,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93, 철학연구회, 2011.
- 신순철·심영덕, 「분단시대와 민족문학의 전개양상」,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 경주전문대학, 1997.
- 양문규, 「윤홍길론-분단 및 산업사회 현실에 대한 독특한 문제의식」, 『현대문학의 연구』 9,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 오은하, 「사르트르의 시선과 관계의 윤리: 『구토』에서 『자유의 길』로」, 『불어불문학연구』 94, 한국불어불문학회, 2013.
- 유임하, 「모성의 근대성」,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 이보영, 「난세의 삶과 암묵의 초점-윤홍길론」, 『현대문학』, 현대문

- 학, 1981.8.
- 이종숙,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연구』 45, 한국서양고전학회, 2011.
- 이철호, 「민중이라는 심연」,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 이평전,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자본주의 공간의 병리성 연구」, 『인문학연구』 37(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이화진, 「윤홍길 성장소설의 세계와 의미」, 『반교어문학회』, 31, 반교어문학회, 2011.
- 임경순, 「전쟁, 기억 그리고 문학교육에 대한 일 연구-윤홍길의 『소라단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 장소진, 「권력의 원시적 지향과 모성적 사랑-윤홍길의 『완장』」, 『시학과 언어학』 24, 시학과언어학회, 2013.
- 정규웅, 「어둠 속의 진실들」, 『한국문학전집』 36, 삼성출판사, 1985.
- 정은주,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시점과 감정이입 미학의 소설교육」, 『교원교육』 34(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8.
- 정주아, 「개발독재 시대의 윤리와 부」,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 조구호, 「분단 극복을 위한 모색-윤홍길의 『낮』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 조선희, 「윤홍길의 『장마』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 나타난 분단 극복의 양상」,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2003.
- 주민재, 「속도, 부유하는 주체 그리고 환멸의 끝자락」, 『한국근대문학연구』 7(2), 한국근대문학회, 2006.
- 차혜영, 「성장소설과 발전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 최창근, 「절대적 환대의 가능성에 대하여」, 『감성연구』 14, 전남대학

- 교 호남학연구원, 2017.
- 한상희, 「70년대 단편소설과 법의 무의식」, 『법학논총』 35,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홍기삼, 「산업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학」, 『한국문학연구』 1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7.
- 홍원표, 「정치적 책임과 용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해」, 『21세기정치학회보』 18(2), 21세기정치학회, 2008.
- 황종연, 「인간적 친화를 꿈꾸는 소설의 역정」, 『작가세계』 5(2), 작가세계, 1993.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 of Pain Appeared in Yoon Heung-gil's Novels

Lee Jeong-h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ain that is the central material of Yoon Heung-gil's novels. He criticizes those who make others painful for their happiness. They do not know that they are causing pain to others. Therefore, they do not wa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actions that have made others painful. This study focuses on these characters in Yoon Heung-gil's novels.

Chapter two focuses on the aspect of universal ignorance that caused others to suffer. Prior to this, I examine Yoon Heung-gil's basic perception of pain. He shows that there is no person who does not suffer, and that human beings can inadvertently inflict suffering on others. Next, I observe that prejudice and a feeling of helplessness are the causes of universal ignorance.

Chapter three focuses on the aspect of the people who caused pain of others trying to evade the responsibility. They justify their own actions. But Yoon Heung-gil compares the way they self-justify and reality. By doing so, he criticizes those who try to avoid responsibility. And he presen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ain. That is, if the abuser is not responsible, the pain comes back to the abuser.

Chapter four focuses on the issue of revenge. I identify the causes of revenge, and looked at the pattern of the damage that revenge had on next generations. And I examine Yoon Heung-gil's way to stop the chain of revenge. He tries to show the emptiness of revenge through the unhappiness experienced by a person who has been devoted to revenge all his life. The next way is to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revenge turns their descendants into sinners.

keywords : Yoon Heung-gil, pain, others, universal ignorance, responsibility, rage, revenge

Student Number : 2016-20036